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 서현빌딩 8층
T. 042-254-6936
F. 042-254-6939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daejeon.theminjo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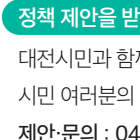
시민과 더불어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대한민국 정당 최초 온라인 당원 가입!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되어 주세요!

문의 : 042-254-6936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대전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100년!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제안-문의 : 042-254-6936



당 내부 비리를 제보해주세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더불어클린센터'
<http://djminjoo-cleancenter.kr>
문의 : 042-254-6936

daejeon.theminjoo.kr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백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daejeon.theminjoo.kr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백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늘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
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습
니다.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어깨
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준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대안을 만드는 그러한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모든 구성원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책으로 승부하고,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쟁이나 다툼을 지양하고, 오직 시민만
을 바라보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는 우리 모두의 꿈이자 바람
입니다.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더불어민주당
에 힘을 모아 주신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골목이 다시 살아나는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윤택한 삶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더 잘 살고, 다 함께
잘 사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청년, 노인,
여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모습과 큰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가식과 권위를 벗어던지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
가가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바
람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갑)
조승래 국회의원
(시당 위원장)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



서구(갑)
박병석 국회의원



서구(을)
박범계 국회의원



유성구(을)
이상민 국회의원



대덕구
박영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백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daejeon.theminjoo.kr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CONTENTS

[인사말]

당대표, 원내대표, 대전시당 제21대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8인 008

I. 화보

사진으로 보는 제21대 총선 020

II. 제21대 총선 관련 활동

1. 대전시당 추진 활동사항 036

2. 대전시당 제21대 총선 정책 070

3. 논평·보도자료·브리핑 074

4. 선거구별 활동사항 134

III. 총평 및 제언 182

IV. 부록

1. 조직 구성표 186

2. 제21대 총선 결과표 187

3. 현수막 200

“더불어민주당은 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해 찬
당대표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대전시당 제21대 총선 백서」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에서 발간까지 백서 제작과정에 참여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는 전국정당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민주진영 최대의 성과였습니다.

특히 대전은 지역구를 전석 석권하며 민주당 총선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전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탄생한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다른 국회여야 합니다.

코로나 국난과 그 이후의 시대적 격변기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반드시 국회를 국난극복의 거점이자 민생활력의 산실로 바뀌내고,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냅시다.

산적인 개혁과제의 선후와 경중, 완급을 조절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뤄냅시다. 그 길의 끝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당 제21대 총선 백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좋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능한 정당, 성과 내는 정당으로 기대에 답할 것”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먼저,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7개 선거구 전승이라는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방역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으며 방역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이 보내주신 압도적 지지는 코로나 위기를 발 빠르고 책임 있게 극복하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전시민의 삶을 보듬고 챙기겠습니다. 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21대 국회 집권여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로서 그 기대와 요구에 사력을 다해 부응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결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변화의 속도에 가속이 붙었습니다. 나쁜 관행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게 결정내릴 수 있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맞춰 21대 국회의 문을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 단일 후보로 추대되신 박병석 의원님께서 정해진 날짜에 임기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그 크신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유능한 정당, 국정 성과를 내는 정당이 되어, 대전시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정치는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이게 국회냐’란 질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이게 국회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시당 제21대 총선 백서」를 발간해주신 조승래 대전광역시당위원장님과 대전시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 태 년
원내대표

“대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조 승 래

시당위원장
유성구갑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성구민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으로서 대전 지역 7석 전석 석권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대전시민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및 5개 구청장들과 함께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원팀이 되어 앞으로의 위기와 지역 현안들을 잘 해결하라는 뜻으로 알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총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거운동을 함께해야 하는 초유의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대한민국은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며 전세계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께서 국난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 여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신 만큼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무엇보다도 ‘일하는 국회’, ‘결론을 내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쟁 대신 생산적인 토론과 시기적절한 결론을 내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177석 책임여당의 선임부대표이자 일하는 국회 추진단 간사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전환점을 맞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주권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7만 4,978표를 얻었습니다. 55.5%의 득표율입니다. 고맙습니다.

서구갑 주민 여러분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직접 써주셨습니다.

충청권 최초 낙선 없는 6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주신 은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은 실기하지 말고 추진하라는 국민의 요청도 생생합니다.

21대 국회가 이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제가 맡은 소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서구와 대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박병석. 초선 때 마음먹은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국난극복, 경제위기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주신 지지와 성원, 그리고 따끔한 충고를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과 한 약속을 하나 하나 지켜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큰 일꾼, 대전 발전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병 석

서구갑 국회의원

“국정의 중심에서 더 크고 많은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상 민

유성구를 국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성구민과 당원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을 당선자 이상민입니다.

먼저 17대, 18대, 19대,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제게 뜨거
운 사랑과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유성구민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힘이 돼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성구민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
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전략및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
장,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장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었으며 특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통과, 과학기술인연금 확충, PBS와 우수연구원제도 개선, R&D 예산 확충 등 사법개혁 분야
와 과학기술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선의원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묵묵히
일해온 것을 유권자분들이 기억해주신 덕분에 5선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유성구민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5선 국
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주민분들의 뜻과 지지를 늘 새기며 의정 활동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우리 유성 발전을 위하여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 산적해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당 등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
로도 많은 지혜와 충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전 유성구를 위해 일하게 해주신 소중한 선택에 감사드리며, 주민분들의 한 표가 의미가
있도록 5선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결속을 다지고, 개혁과 혁신을 위한 정치로 국민들의 정치불
신을 해소하겠습니다. 유성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21
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정의 중심에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두에서 충청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구를 선거구 당선인 박범계입니다.

대전의 정치1번지를 넘어 충청의 심장인 서구를 유권자 여러분께서 주신 크
나큰 신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큰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서구율의 발전, 대전의 업그레이드, 충청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두주자가 되
겠습니다.

대전센트럴파크 추진으로 랜드마크 조성,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
기관 추가 이전 완성, 대전과 세종·충북·오송을 잇는 골든트라이앵글 충청
판 실리콘밸리 조성. 이 세 가지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변방의 역사, 충청의 역사를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을 세우는 데 담대
히 도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과반이상 의석수와 대전 7석 전석 확보라는 선거결과
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집권 여당이 되어달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가치와 문재인인의 국정철학을 계승해 ‘혁신과 공정’의 시대정신으
로 대전·충청·세종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는 벤처창업단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이러한 큰 신임과 승리를 안겨주신 유권자 여려
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그 감사를 혁신과
공정의 정치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범 계

서구를 국회의원

4월에서 5월 사이, ‘껍데기’는 영원히 가라!



황 운 하
중구 국회의원

그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던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1960년 4월의 하늘 아래, 1980년 5월의 땅위에서 알맹이의 정신을 묵놓아 외친 기억이 있습니다. 또 2009년 5월 봉하 마을에서,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의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을 목도했습니다. 충남 부여 출신 참여시인 신동엽은 이미 1967년 ‘4월은 갈아엎는 달’이라고, ‘껍데기는 가라’고 분연히 외쳤습니다. 그가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 또한 4월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신동엽 시인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온 인류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곳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광부나, 농민이 모두 함께 삼등 대합실을 이용하는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와 꽃의 이름, 예술가와 극작가 이름을 먼저 외우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군사기지보다 포도밭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은 전쟁을 흉내 내며 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꿈무늬에 막걸리 병을 싣고, 삼십 리 시골길 시인의 집에 놀러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통령’조차 권력을 남용하기보다 단지 하나의 직함일 뿐, 어느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런 자전거 타는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뒤에 손녀딸을 태우고 논길을 달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50년 전, 시인이 꿈꿨던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 속에서 국민과 권력의 싸움은 결국 국민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과 희생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1호 백범 김구 선생에게 맹세한 것처럼, 우리 고향 출신 단체 신채호 선생 동상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오직 국민, 오직 인권, 오직 민생을 지키겠다는 초심으로 나서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앞에서 끌고, 때로는 뒤에서 밀며 또 때로는 어깨동무하면서 동지들과 함께 뚜벅뚜벅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직 대덕구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 국회의원 박영순입니다.

저 박영순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대전과 대덕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대덕구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나라와 민생을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과감한 정치혁신을 통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와 예산 확보로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여러분께 드린 약속 천금같이 지키겠습니다. 비록 초짜 국회의원, 많이 늦은 후발주자이지만 우리 대덕구만큼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정경험과 대전 시정 경험을 쏟아 붓겠습니다.

셋째,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정치! 저 박영순이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대덕구민 여러분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대덕구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영 순
대덕구 국회의원

“대전은 계속 한 팀으로 뛰겠습니다”



장 철 민
동구 국회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연대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온라인 소통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정보를 두고 판단하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도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유비쿼터스 시대의 선거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겪어본 적 없는 선거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선거를 운영했고, 새로운 대전혁신비전을 제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맞는 대전 발전상을 공약하며 책임감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님과 시당 당직자 및 모든 당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후보님께서는 본인의 선거로 바쁜 와중에도 대전 전체의 승리를 위해 많은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첫 출마인 저도 대전시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과 발전하는 대전을 위한 한마음을 모아주신 선거였습니다. 기쁜 마음도 크지만 그만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전의료원, 대전혁신도시, 대전선 철길공원화, 원도심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등 공약사항 이행에 빈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시기처럼, 대전 전체가 한 팀으로 뛰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전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5총선 압승은 노동존중 사회 염원이 반영된 것”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노동주체로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노동존중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의 정책 협약 기초 하에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확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의 실현 등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과 노동자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과반의 의석을, 우리지역에서는 7석 전의석을 모두 확보하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제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과의 ‘노동존중 정책협약’(사회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통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약속을 지속적·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명령인 동시에, ‘노동존중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안의 노동정책 및 노동존중가치 공약들이 반드시 이행되어,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존중 사회 건설에 대한 우리 노동자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러한 정책과 공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노동존중 사회 건설에 앞장 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도 노동존중 사회 건설에 함께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 용 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한민국미래준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2020년 5월 6일 시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및 당선인들이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I

사진으로 보는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백서

01. 새로운 대전을 위한 약속
02. 4·15 총선 현장 속으로
03. 대전시민의 승리
04. 새롭게 도약하는 대전

01. 새로운 대전을 위한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동선대위원장(8인)이 3월 31일 오전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1차) 회의에서 '일 잘하는 1등 정당! 대전은 하나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동선대위원장(8인)이 4월 7일 오전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미래성장동력 3대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8일 대전시당을 깜짝 방문하여 원외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해찬,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이 4월 10일 오후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동 선대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01. 새로운 대전을 위한 약속



4월 10일 오전 중앙시장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박영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10일 오후 대덕구 일대에서 박영순 후보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4월 12일 오후 장철민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대전을 방문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캠프 사무실에서 장철민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4월 12일 오후 중앙시장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황운하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이 4월 12일 서대전네거리에서 황운하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02. 4·15 총선 현장 속으로



조승래 시당위원장과 장철민 후보가 각각 3월 19일과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마켓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장철민 후보가 3월 12일 동구 자양동을, 황운하 후보가 24일 중앙로 지하상가를, 조승래 시당위원장이 10일 유성 경로당 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박병석 후보가 3월 15일 서구의 한 공방에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박범계 후보가 면마스크 제작 및 기부를 위해 3월 16일 선거 캠프에서 시구의원, 당원, 봉사자들과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되지만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02. 4·15 총선 현장 속으로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코로나19사태로 제한적인 상황속에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코로나19사태로 제한적인 상황속에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코로나19사태로 제한적인 상황속에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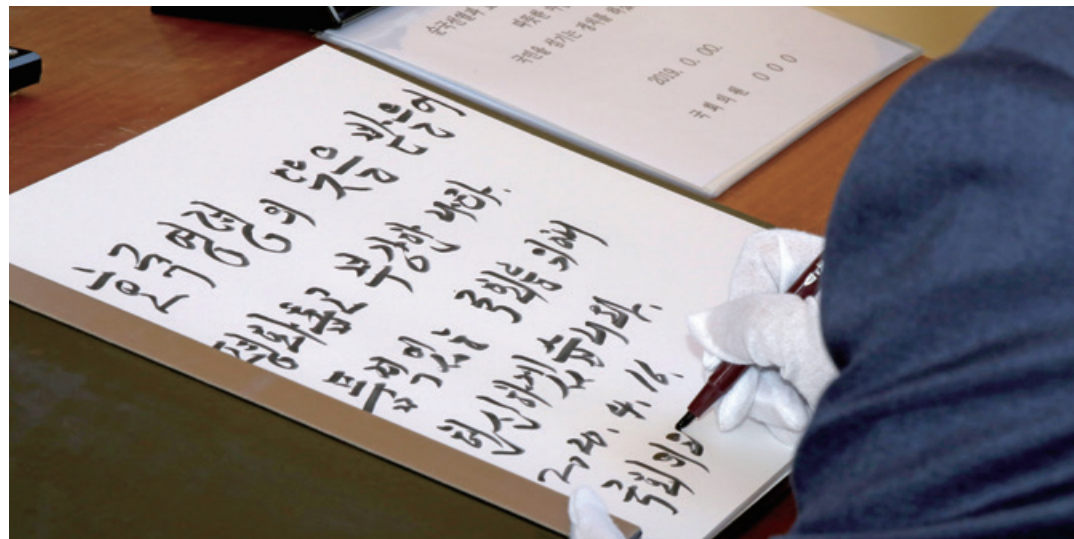


광역,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03. 대전시민의 승리



시당 당직자가 제21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 당선현황판에 당선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박병석 당선인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방문,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제21대 총선 당선자들이 4월 16일 국립 대전 현충원 및 4.16 세월호 순직교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대전시당 고문단이 5월 18일 오찬 간담회 후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과 시·구의원들이 5월 26일 시의회에서 열린 시민경청좌담회에 참석해 좌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 시·구의원들이 1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0 전국 지방의원 교육연수'에 참여해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I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백서

제21대 총선 관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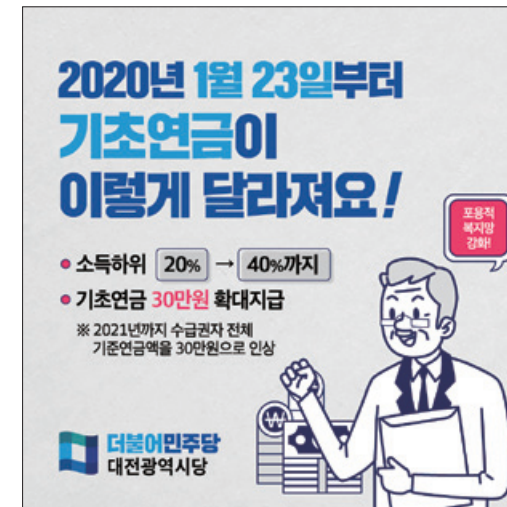
- ▶ 01. 대전시당 추진 활동사항
- 02. 대전시당 제21대 총선 정책
- 03. 논평·보도자료·브리핑
- 04. 선거구별 활동사항

01. 대전시당 추진 활동사항

■ 카드뉴스 및 홍보 이미지 제작

- **목적** : 총선을 앞두고 노인정과 지역 어르신들을 상대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시당 차원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함
- **1탄 '기초연금 확대지급'**
 - 일자 : 2020. 1. 21. (화)
 -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산정해 합산한 금액)에 따라 소득하위 40% 이하면 매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70% 이하면 매월 25만 3750원을 받을 수 있음. (단, 공무원연금, 군 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수급대상자에서 제외)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수혜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함
- **2탄 '지역인재 의무채용'**
 - 일자 : 2020. 1. 22. (수)
 - 내용 : 대전지역 학생들의 숙원인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드디어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여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 10개, 충남 2개, 세종 19개)에 더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 17개, 충북 1개, 충남 1개, 세종 1개)으로의 확대를 통해 대전지역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됨
- **3탄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 일자 : 2020. 1. 31. (금)
 - 내용 :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그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대전지역의 가장 큰 이슈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카드뉴스 제작, 홍보



1탄 '기초연금 확대지급'



2탄 '지역인재 의무채용'




3탄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 정책·공약 및 후보자 선거벽보 홍보

#코로나19 극복 #힘내라대한민국

대전시 코로나19 긴급재정 투입 총 4,662억



민생안정자금

13개 사업 **1,623억원**

-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700억 원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63만원
- 확진자 방문 및 장기 휴업점포 지원 6억 원
 >확진자 방문업소 최대 300만원
 >장기 휴업점포 최대 100만원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 지원 20억 원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2개월간)

경제활력자금

11개 사업 **2,355억원**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00억 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지원 63억 원
-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16억 원

내수회복 특별대책

9개 사업 **684억원**


- 지역화폐 조기 발행 600억 원
 >20. 5월~ / 할인을 최대 15% 적용
 >최대 5,000억원 발행(당초 2,500억원, 2배 확대)
- 시청 구내식당 한시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20. 4월~ / 1과 1부담동 지정
 >향후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유도
- 대전형 세일페스타(대전을 팝니다) 개최
 >20. 5월~6월 / 지역화폐 발행 연계
 >지역상품 최대20%까지 할인(지역화폐 15%+업소할인5%)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코로나19 관련 긴급재정 투입 홍보물

“새로운 대전의 청사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4.15 총선 10대 공약



- 01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유치**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안정성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인재의 무채움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02 대덕특구 재정조 본격화 사업**
공공과 민간이 융화된 도시형 글로벌 혁신공간 구축으로 대전에서 발파된 혁신 역량을 국·내외로 확산
- 03 대전의료원 설립**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로서 대전의료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적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04 대전교도소 이전 신속 추진**
대전교도소 이전에 따른 중전부지 및 주변지역의 적극적인 정비를 통한 도심 활성화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05 대전 도심권 순환도로망 구축**
교통 혼잡시간대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 견인하고, 순환도로망 연결을 통한 매년 증가추세인 교통혼잡비용 (15년 기준 1조 2,869억원 / 2010년 대비 16.1% 증가) 절감 효과
- 06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대전·충북·세종 광역 생활권 조성 및 지역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충청권 교통·물류 혁신과 상생 발전에 큰 기여
- 07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으로 시민 소외감 해결과 감사관한 분야에 따른 신속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체감도 향상
- 08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자원 시스템 구축**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으로 미래 유망 먹거리 유전자바이오산업 선도 기반을 확보하고 1천억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7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 09 대전형 좋은 일자리 사업 확대**
근로시간 단축, 원화정관계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문화 개선 등을 통한 노사상생문화 조성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10 사·스마트랜드 조성**
생활전반에 활용된 최첨단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을 활용 불거리, 줄거리 마련으로 과학도시 대전 위상 제고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대전시당 4·15 총선 10대 공약 홍보물

• 제21대 총선 및 재보궐 선거 후보자 홍보물

1 코로나 전쟁

대전시민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장철민
전남도 교육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중구

박병석
국회의원
한결같은 사랑

박범계
국회의원
크게 알기하면 더 크게 해드립니다

조승래
국회의원
힘이 되는 사람

이상민
국회의원
국정의 중심

박영순
국회의원
혁신도시 대덕!

박수빈
국회의원
믿음이 가는 준비된 시의원

김동성
국회의원
함께 있어 든든한 사람!

신혜영
국회의원
일 잘하는 준비된 구의원

송재만
국회의원
현장중심 민생정치!

1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지역별 사전투표소 안내 홍보물 제작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5총선 우리동네 동구 사전투표소 안내

4.10. (금)~4.11. (토) 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건물명)	소재지
중앙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동 2 (소계동)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동 2 (소계동)
신안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신안동 43 (신안동)	대전광역시 중구 신안동 43 (신안동)
효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효동 79 (효동)	대전광역시 중구 효동 79 (효동)
한남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한남1동 10 (한남1동)	대전광역시 중구 한남1동 10 (한남1동)
한남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한남2동 23 (한남2동)	대전광역시 중구 한남2동 23 (한남2동)
용문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용문동 109 (용문동)	대전광역시 중구 용문동 109 (용문동)
대동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대동1동 74-57 (대동1동)	대전광역시 중구 대동1동 74-57 (대동1동)
자갈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자갈동 16 (자갈동)	대전광역시 중구 자갈동 16 (자갈동)
가림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가림1동 3-2 (가림1동)	대전광역시 중구 가림1동 3-2 (가림1동)
가림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가림2동 100 (가림2동)	대전광역시 중구 가림2동 100 (가림2동)
용문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용문동 51-5 (용문동)	대전광역시 중구 용문동 51-5 (용문동)
성남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성남동 5 (성남동)	대전광역시 중구 성남동 5 (성남동)
홍도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홍도동 34 (홍도동)	대전광역시 중구 홍도동 34 (홍도동)
상서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상서동 22 (상서동)	대전광역시 중구 상서동 22 (상서동)
대동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대동2동 3 (대동2동)	대전광역시 중구 대동2동 3 (대동2동)
신안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신안동 1325 (신안동)	대전광역시 중구 신안동 1325 (신안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5총선 우리동네 중구 사전투표소 안내

4.10. (금)~4.11. (토) 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건물명)	소재지
은행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은행동 303 (은행동)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03 (은행동)
목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목동 39 (목동)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39 (목동)
충현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충현동 663 (충현동)	대전광역시 중구 충현동 663 (충현동)
대동3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대동3동 109 (대동3동)	대전광역시 중구 대동3동 109 (대동3동)
문정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문정동 99 (문정동)	대전광역시 중구 문정동 99 (문정동)
서교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서교동 12 (서교동)	대전광역시 중구 서교동 12 (서교동)
대서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대서동 17 (대서동)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17 (대서동)
부서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부서동 17 (부서동)	대전광역시 중구 부서동 17 (부서동)
용문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용문동 17 (용문동)	대전광역시 중구 용문동 17 (용문동)
오류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오류동 46 (오류동)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46 (오류동)
대평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대평1동 123 (대평1동)	대전광역시 중구 대평1동 123 (대평1동)
대평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대평2동 478 (대평2동)	대전광역시 중구 대평2동 478 (대평2동)
유전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유전1동 1546 (유전1동)	대전광역시 중구 유전1동 1546 (유전1동)
유전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유전2동 13 (유전2동)	대전광역시 중구 유전2동 13 (유전2동)
문희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문희동 295 (문희동)	대전광역시 중구 문희동 295 (문희동)
문희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문희동 33 (문희동)	대전광역시 중구 문희동 33 (문희동)
상서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중구 상서동 54 (상서동)	대전광역시 중구 상서동 54 (상서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5총선 우리동네 서구 (갑) 사전투표소 안내

4.10. (금)~4.11. (토) 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건물명)	소재지
복수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복수동 49 (복수동)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49 (복수동)
도대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도대1동 46 (도대1동)	대전광역시 서구 도대1동 46 (도대1동)
도대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도대2동 77 (도대2동)	대전광역시 서구 도대2동 77 (도대2동)
충현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충현동 32 (충현동)	대전광역시 서구 충현동 32 (충현동)
문정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문정동 373 (문정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동 373 (문정동)
가림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가림1동 15 (가림1동)	대전광역시 서구 가림1동 15 (가림1동)
가림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가림2동 6 (가림2동)	대전광역시 서구 가림2동 6 (가림2동)
대동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대동1동 262 (대동1동)	대전광역시 서구 대동1동 262 (대동1동)
가수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가수동 105 (가수동)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동 105 (가수동)
관저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관저1동 24 (관저1동)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 24 (관저1동)
관저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관저2동 82 (관저2동)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2동 82 (관저2동)
가성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가성동 54 (가성동)	대전광역시 서구 가성동 54 (가성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5총선 우리동네 서구 (을) 사전투표소 안내

4.10. (금)~4.11. (토) 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건물명)	소재지
충현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충현동 191 (충현동)	대전광역시 서구 충현동 191 (충현동)
한남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한남1동 100 (한남1동)	대전광역시 서구 한남1동 100 (한남1동)
문정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문정동 100 (문정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동 100 (문정동)
도대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도대1동 77 (도대1동)	대전광역시 서구 도대1동 77 (도대1동)
도대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도대2동 77 (도대2동)	대전광역시 서구 도대2동 77 (도대2동)
충현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충현동 32 (충현동)	대전광역시 서구 충현동 32 (충현동)
문정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문정동 373 (문정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동 373 (문정동)
가림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가림1동 15 (가림1동)	대전광역시 서구 가림1동 15 (가림1동)
가림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가림2동 6 (가림2동)	대전광역시 서구 가림2동 6 (가림2동)
대동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대동1동 262 (대동1동)	대전광역시 서구 대동1동 262 (대동1동)
가수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가수동 105 (가수동)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동 105 (가수동)
관저1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관저1동 24 (관저1동)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1동 24 (관저1동)
관저2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관저2동 82 (관저2동)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2동 82 (관저2동)
가성동사전투표소	대전광역시서구 가성동 54 (가성동)	대전광역시 서구 가성동 54 (가성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5총선
우리동네 유성구 (갑)
사전투표소 안내

4.10. (금)~4.11. (토) 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건물명)	소재지
신당동사전투표소	신당초등학교1층, 역사관 대목제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당로59번길 53 (신당동)
문신동사전투표소	문신중동행정복지센터2층, 대목제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신로 27-18 (문신동)
문신1동사전투표소	문신1동행정복지센터2층, 화정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신로58번길 35 (문신동)
문신2동사전투표소	이문중학교1층, 대목제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신로 56 (문신동)
노은1동사전투표소	노은1동행정복지센터2층, 화정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87번길 89 (노은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5총선
우리동네 유성구 (을)
사전투표소 안내

4.10. (금)~4.11. (토) 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건물명)	소재지
노은2동사전투표소	노은2동행정복지센터2층, 대목제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19번길 35 (노은동)
노은3동사전투표소	노은3동행정복지센터2층, 대목제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곡로 145 (자곡동)
신성동제1사전투표소	유성구노은복지관2층, 제1대관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림로 15 (신성동)
신성동제2사전투표소	자문대3층, 자문대체육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문로221번길 120-34 (신성동)
관인동사전투표소	관인동행정복지센터2층, 대목제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79 (관인동)
구죽동사전투표소	북부노인복지관3층, 대관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관로 1175 (구죽동)
관평동사전투표소	관평동행정복지센터2층, 대관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로 42 (관평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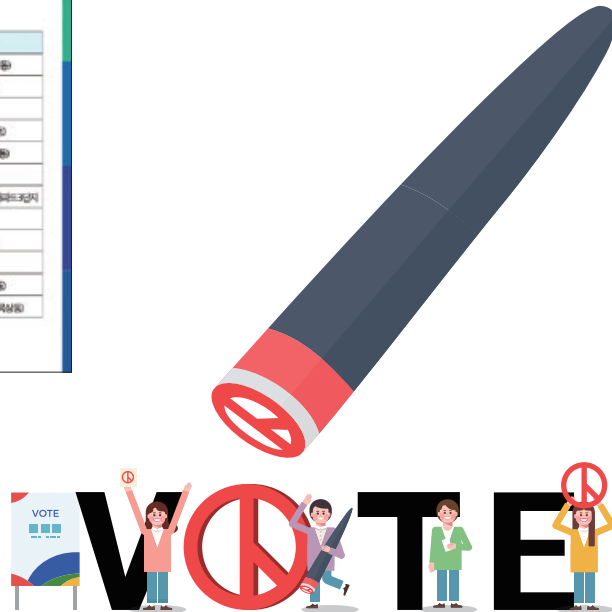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5총선
우리동네 대덕구
사전투표소 안내

4.10. (금)~4.11. (토) 오전 6시~오후 6시 2일간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건물명)	소재지
우암동사전투표소	대덕구청1층, 행정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로303번길 20 (우암동)
대학동사전투표소	대학초등학교1층, 대목제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로 242-36 (대학동)
회덕동사전투표소	대덕구청2층, 구대덕구청(신입생)3층, 진서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로 1348 (회덕동)
비례동사전투표소	비례초등학교1층, 대목제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례로402번길 65 (비례동)
송촌동사전투표소	송촌동행정복지센터2층, 대목제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59번길 11 (송촌동)
중리동사전투표소	중리중학교1층, 가림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로 85 (중리동)
법1동사전투표소	중리중합사행정복지센터3층, 강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곡로66번길 34 (법1동)
법2동사전투표소	법2동행정복지센터2층, 제1대관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로 157 (법2동)
신남동사전투표소	신남초등학교1층, 화정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남로 830 (신남동)
석울동사전투표소	석울문화센터1층, 강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울로 38 (석울동)
덕암동사전투표소	신당중학교2층, 과학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3번길 24 (덕암동)
목상동사전투표소	목상초등학교1층, 4-야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로2348번길 117 (목상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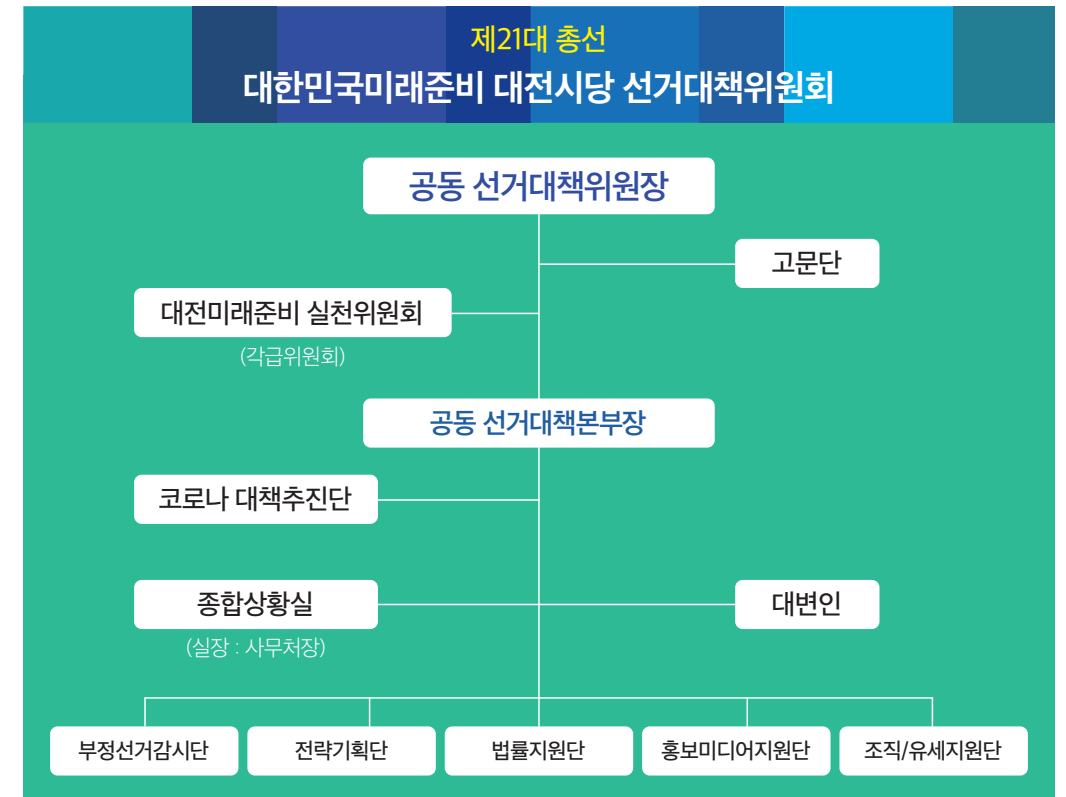
• 의의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4·15 총선 승리를 위해 2020년 3월 23일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음. 대전시당 선대위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대전미래실천위원회(각급위원회)와 고문단이 자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꾸려짐. 또한 종합상황실과 대변인실이 실무를 총괄하고 부정선거감시단과 전략기획단, 법률지원단, 홍보미디어지원단, 조직·유세지원단 등 실무 중심의 분야별 지원체계를 갖추는 등 총 200여명으로 구성

• 목표

- 대전지역 국회의원 20대 국회 구성이 7개 선거구 중 4:3(더불어민주당 4석, 미래통합당 3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대 국회는 4 + α를 목표

• 조직구성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기구표

- 세부현황

※ 총 242명으로 선대위 구성

분과	직위	성명	주요 경력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승래	현) 유성구갑 국회의원 (초선) / 현) 대전시당위원장
		박병석	현) 서구갑 국회의원 (5선) / 전) 제19대 국회부의장 (전반기)
		이상민	현) 유성구를 국회의원 (4선) / 전) 제19대 국회법사위원장 (전반기)
		박범계	현) 서구를 국회의원 (재선) / 전) 대전시당위원장
		장철민	동구 국회의원 후보
		황운하	중구 국회의원 후보
		박영순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김용복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선거대책본부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권오철	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송행수	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 지역위원장
		전병덕	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안필용	전) 유성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종남	전) 유성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종래	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 지역위원장
		최동식	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 부분부장	김종천	현) 대전시의회 의장 (3선)
		이나영	현) 동구의회 의장 (4선)
		김창관	현) 서구의회 의장 (3선)
		하경옥	현) 유성구의회 의장 (재선)
		서미경	현) 대덕구의회 의장 (재선)
		유인봉	현)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대전지역버스노조위원장 전)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박병국	현) 한국타이어 노조위원장 현)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배영옥	전) 대전광역시 성평등기획 특보 전) (재) 아름다운가게 대전충청본부장
		김검훈	현) 이재민사랑본부 공동대표,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현) 한남대학교 입학사정관, 한남대학교 연구교수 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제6대 회장
		이복섭	전) 제7회 지방선거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 전) 대전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 실무지원팀

- 구성원

분과	직위	성명	주요 경력
당직자	종합상황실장	김정표	대전시당 사무처장
	대변인	최영석	대전시당 대변인
	정책팀장	노준호	대전시당 정책실장
	총무팀장	김빛나	대전시당 총무부장
	조직팀장	이광배	대전시당 조직국장
	조직부팀장	윤자은	대전시당 조직차장
캠프별	동구	정근모	동구 선거사무소 사무장
		황두영	동구 선거사무소 기획담당자
	중구	김진태	중구 선거사무소 사무장
		장진섭	중구 선거사무소 기획담당자
	서구(갑)	이용수	박병석 국회의원실 보좌관
		송석근	서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서구(을)	문병남	박범계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대우	박범계 국회의원실 비서
	유성구(갑)	최종길	조승래 국회의원실 보좌관
		우상훈	유성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유성구(을)	조원휘	이상민 국회의원실 보좌관
		전형우	이상민 국회의원실 비서
	대덕구	서영완	대덕구 선거사무소 사무장
		이태주	대덕구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 원팀(One-team) 공동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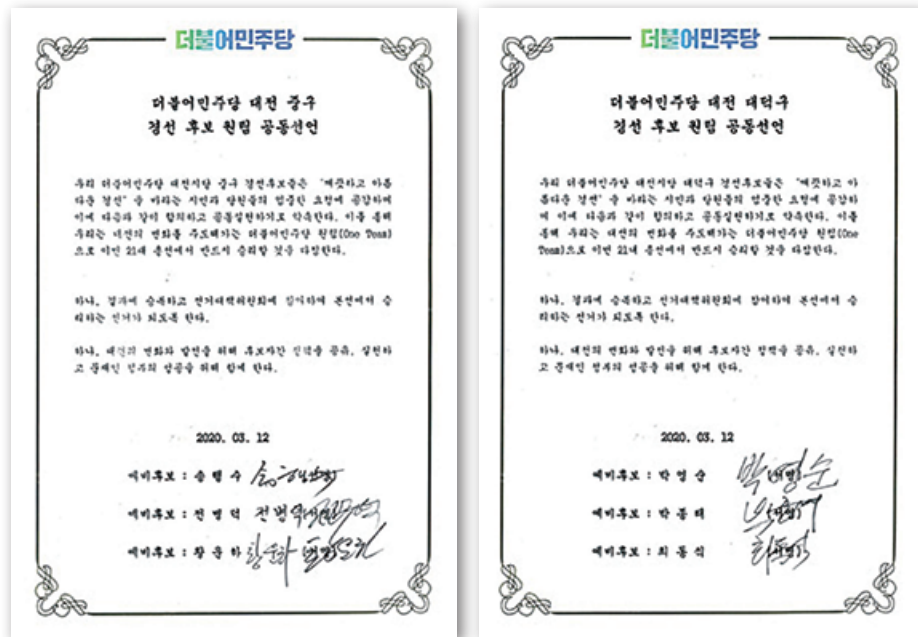
• 일자/장소 : 2020. 3. 12. (목) / 각 후보자 사무실

• 내용

- 경선결과를 통해 중구와 대덕구 후보가 발표되기 앞서 두 지역구의 예비후보들에게 승복과 총선 본선 승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원팀(One-team)’으로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

• 예비후보자(총 6인)

- 중구(3인) : 송행수, 전병덕, 황운하 예비후보
- 대덕구(3인) : 박영순, 박종래, 최동식 예비후보



중구 3인(송행수, 전병덕, 황운하), 대덕구 3인(박영순, 박종래, 최동식) 후보자의 원팀 공동선언문

우수선거운동 사례

• 코로나19 대책 '마켓 챌린지 캠페인'

- 일자 : 2020. 3. 19. (목) ~

- 내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챌린지' 캠페인 진행

*방식: 조승래 시당위원장을 시작으로 캠페인 참여 제안을 받은 사람이 지역 전통시장이나 상가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또 다른 3명에게 제안하는 방식



조승래 시당위원장과 이상민(유성을)후보가 마켓챌린지의 일환으로 각각 지역마트와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 내용 : 조승래 시당위원장의 지목으로 마켓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 중인 이상민(유성을) 후보자와 박범계(서구을) 후보자가 지목한 장철민(동구) 후보자의 물품 구매 모습



박범계(서구을)후보와 장철민(동구)후보가 마켓챌린지의 일환으로 각각 지역 문구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활동 내용

•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단 회의’ (1차)

- 일자 : 2020. 3. 31. (화) 오전 10시 / 시당 회의실

- 내용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긴급 재난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조기 종식과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등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여당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공동선대위원장들이 3월 31일 시당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연대 협약 및 지지선언

- 일자 : 2020. 4. 1. (수) 오후 2시 /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3층 소회의실

- 내용 : 한국노총대전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노동 기본권 확립과 정당한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과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한 복지 증진' 등 5개 정책 방향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대 협약 체결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이 4월 1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정책연대 협약 및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단 회의’ (2차)

- 일자 : 2020. 4. 2. (목) 오전 10시 / 시당 회의실

- 내용 : ‘대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호소문 낭독을 통해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힘. 또한, 지역별 대표 정책 공약도 함께 소개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공동선대위원장이 4월 2일 시당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호소문 내용 (전문)

- 각 지역 후보자 7인(동구 장철민, 중구 황운하, 서구갑 박병석, 서구를 박범계, 유성갑 조승래, 유성을 이상민, 대덕구 박영순)이 호소문 낭독

[대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대전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더불어 지역경제 침체로 온 국민이 고통과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에 더 강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외환위기와 사스, 일본수출규제 등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겨 낸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것 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민의 저력과 역량을 믿고, 시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선거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로 서로 마주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선거운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다짐했던, 국민을 지키는 정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2017년 촛불혁명 때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완수하기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코로나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대전 시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이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흔들리는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더 나은 대전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하나,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유치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완성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 대전의료원 조기건립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로서 입지 예정지인 동구 용운동에 대전의료원을 조기 건립하여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나, 중앙로 일원 첨단복합 창업특구 조성으로 더불어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공동화가 심화된 원도심 일원을 일터·주거·문화시설 등이 결합한 비즈니스 복합단지로 기능을 재편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대덕특구의 공공기술을 원도심 권역까지 확산하여 창업으로 성공하는 벤처창업 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유천동 서남부 터미널을 국내 최고 수준의 '복합 문화터미널 파크'로 개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서남부 터미널을 대형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시설과 수영장 등 전천후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마을극장, 복지시설 등을 두루 갖춘 '문화터미널 파크'로 매력 넘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도시철도2호선 '트램'의 조기 착공과 지선연결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 도시철도2호선 '트램'을 2025년까지 완공하고, 지선연결을 통해 기존 37%의 공공교통 부담률을 50%까지 끌어올려 도시혼잡해소, 대기오염감소, 교통사고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하나, 광역철도 1단계 구간 노선 역세권 개발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 대전 신탄진부터 충남 계룡을 잇는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도마복수, 가수원, 흑석리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재정비하여 지역 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하나, 국가 도시정원 '대전 센트럴파크'완성으로 대전을 관광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 둔산 도심 녹지축인 갑천과 정부청사, 대전시청 남측 보라매공원을 연결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이자 시민의 건강코스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으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 대전, 세종, 오창, 오송, 천안, 아산을 잇는 충청광역경제권을 조성해 청년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충청을 동북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국제 온천관광 거점지구 유치를 통해 유성온천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 문체부의 국제 온천관광 거점지구 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성온천 재창조를 통한 도시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유성구를 글로벌 테스트베드(미래시범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 충남대, 한밭대, KAIST 등 대학과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기술, 인적 자원 등 유성의 혁신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테스트베드 육성을 통해 스타트업 파크, 실패혁신캠퍼스 등 개방형 혁신 창업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으로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을 이루겠습니다.

☞ 유성 문지동, 금고동, 둔곡동 등 일원에 국가적 차원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으로 연구개발 특구 내에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 제로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설정하고, 연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나, 세계적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으로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겠습니다.

☞ 세계적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으로 진단,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대덕구 연축·신대지구를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연축·신대지구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덕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공공종합병원으로 재건축하겠습니다.

☞ 법동의 옛 중앙병원을 집중재활전문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재건축하여 대덕구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지역밀착형 공공의료기관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과 대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야당의 정책은 공허한 희망 메시지에 불과하지만, 여당의 정책은 곧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그리고 대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총선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생은 외면한 채 틈만 나면 장외집회와 폭력, 불법과 편법 난무로 번번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반(反)국민 DNA를 가진 정당에게 대한민국과 대전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여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IMF 위기 극복, 노무현 정부의 사스 극복, 문재인 정부의 일본수출규제 극복 등 민주당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로 부터 국민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십시오.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쓰겠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후보자 일동

•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단 회의' (3차)

- 일자 : 2020. 4. 7. (화) 오전 10시 / 시당 회의실

- 내용 : 대전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인 '대전 미래성장동력 3대 플랜' 발표를 통해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 또한 총선 선거운동 상황과 여론 반응 추이 등을 점검하고 '국민을 지키다'와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힘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 호소

대전 미래성장동력 3대 플랜

①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대비해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다수 유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

② 대전을 대한민국 의료·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

: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년 11월 12일)됨에 따라 바이오산업 특화분야 유치를 통해 이를 대전의 유망 먹거리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과 더불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방편으로 유전자 의학산업 진흥센터와 세계적인 바이러스연구소를 설립해 스마트 헬스 케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국가적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산·학·연·병 연계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을 세움

③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 완공과 지선연결로 대전을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지화, 과학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대중교통의 혁신

: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완공과 지선연결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에 힘쓰는다는 계획을 세움



대전 지역 후보자 7인이 시당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선대위원장단 3차 회의에서 '대전 미래성장동력 3대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 원외후보자 3인 집중 지원유세

- 내용 : '원외지역(동구·중구·대덕구) 집중지원유세 계획'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들의 원외 후보자에 대한 집중지지 호소



조승래, 박병석, 박범계 등 현역 의원들이 4월 13일 오후, 신탄진 시장에서 박영순(대덕구)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이 4월 12일 서대전 네거리에서 한운하(중구)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이 4월 12일 중앙시장에서 장철민(동구)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중앙당(민주당 지도부) - 대전시당 활동내용

• 이해찬 당대표 대전시당 격려방문

- 일자 : 2020. 4. 8. (수) 오후 3시 / 시당 회의실
- 내용 : 이해찬 당대표가 대전시당을 방문하여 장철민(동구), 황운하(중구), 박영순(대덕구) 원도심 후보자들에 대한 격려 및 지역 민심 동향, 선거운동 상황, 지역의 핵심 쟁점과 숙원 사항을 청취



이해찬 당대표가 4월 8일 시당을 깜짝방문하여 원도심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8일 대전시당을 깜짝방문한 이해찬 당대표가 대전시당 당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해찬 당대표 사전투표(대전)

- 일자 : 2020. 4. 10. (금) 오전 9시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이종걸, 우희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등 동행)

•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

- 일자 : 2020. 4.10.(금) 오전 11시 / 시당 회의실
- 내용 : 이해찬,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및 민주당 지도부, 대전 지역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대전시당에서 합동 선대위 회의를 개최함. 이해찬,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공공기관 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바이오메디컬 특구의 내실화 추진, 유전자 의약산업 진흥센터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지원, 대전 의료원 설립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논의
-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 공동정책·공약 발표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위한 공동 정책·공약

첫째,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산업 거점의 대전, 명실상부한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첨단도시, 미래 신산업을 통한 충청권 지역경제 및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전초기지 대전, ‘대전미래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일지리를 창출하고 대전 원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며,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대덕R&D특구’ 재창조를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특구를 정부출연연구원과 민간연구소가 R&D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글로벌 융복합 혁신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대전을 대한민국 의료·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원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대전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2020. 4. 10.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이해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대위원회의에서 각각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박병석 충청권 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대전·세종·충청 시민·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대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아산과 진천 주민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 고향이 청양인데 충청의 아량과 덕을 잘 보여준 일이라 마음이 뿌듯하다.

이제 선거가 5일 남았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있는데 저도 여기 오기 직전에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장에 가보니 열도 재고 소독도 하고 거리 두기도 잘 되어서 전혀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다.

지금 경합지역이 많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이 경합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하셔도 투표를 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꼭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국난 극복 선거, 경제 위기 극복 선거, 국정 안정 선거이다. 외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는 절대 방심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겨서 국회가 발목을 잡혀서는 결코 안 된다. 경제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와 협조를 잘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여러분께서 지역은 1번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5번 더불어민주당을 뽑아 주시면 국정을 안정시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 발전의 양 날개가 되겠다. 공공기관 이전 용역이 끝나서 곧 이전이 시작될 텐데 이번에는 대전이 손

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특별법을 이미 만들어서 충청 지역에 오는 공공기관에는 대전·세종·충청 대학 출신들이 지역 인재 등용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K-바이오 산업에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는데 대전과 충청을 혁신성장의 메카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안정적인 제1당이 되려면 아직 2% 부족하다. 박빙인 지역이 아주 많다. 충청도에도 박빙인 지역이 매우 많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되어야 국정 안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나와 도와주시고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와 다음 주 본 투표까지 '지역구는 첫째 칸 1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셋째 칸 5번 더불어민주당'을 기억하시고 꼭 찍어주시기 바라겠다.

여기 오는 길에 뉴스를 하나 들었다. 어느 나라에서 우리 교민들이 귀국해야 하는데 비행기 편이 없어서 동동 발을 구르고 있었다. 그 나라 국왕이 자기 비행기로 귀국을 시켜 주면서 대신에 한국에서 코로나에 관한 의료용품을 그 비행기로 실어 오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무사히 우리 교민들이 귀국을 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책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어 인정을 받고 있다. 확진 환자가 하루 40명 수준으로 떨어졌기는 하지만 언제 또 집단 감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당·정간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들도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 코로나19를 퇴치하면서 동시에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국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 정치싸움을 벌일 겨를이 없다. 생각이 다르고 입더라도 그것을 누르고 지혜와 힘을 모아 국난을 이겨야 한다.

코로나19는 많은 교훈을 인류에게 주고 있다. 특히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역량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도록 돕겠다. 대전기업 솔젠티가 만드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세계적 수출을 지원하는 등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 유전자 의약산업 진흥센터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대전 의료원 설립도 추진하겠다.

이제 마스크 5부제는 정착되었다. 수고해 주신 전국의 약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공적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 약국의 수익이 거의 되지 않는 공적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진단기술과 대응체제로 이미 세계에 기여하고 있다. 약 130개 나라가 우리 중·소기업의 진단키트를 도입하려 한다. 우리 국민은 사재기 한번 없이 매우 성숙하고 안정되게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숙하고 안정된 대치는 코로나 사태 초기 우한 교민을 격리시설에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신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아량과 양승조 충남지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표현되었다. 경의를 표한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서도 세계에 공헌하려 한다. 우리 제약업계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노력과 비용을 보상해드리기로 했다. 머지않은 장래에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우리는 훌쩍 커진 대한민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직감한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 당장의 코로나 전쟁에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하루라도 일찍 이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되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자. 지금은 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4·15 총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박병석 충청권역선대위원장

강을 건너는 나룻배의 뱃사공을 바꾸지 않는다. 전쟁터의 장수도 바꾸지 않는다.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국의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의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고 있다. 정국 혼란을 막아 달라. 이번 4·15 총선은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구성되는 국회이다. 촛불시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 많이 당선시켜 주시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에게 말씀드린다.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충청권·세종시의 발전을 가로막지 말아 달라. 세종 국회 유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이미 19년도 예산에 확보된 기존 설계비조차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반국가 균형 발전의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대전 시민들 100만이 서명운동을 한 혁신도시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미래통합당의 영남권 위원들이 있다. 국가적 큰 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세종시의 완성 그리고 충청권의 혁신도시에 전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전적으로 촉구한다.

조승래 대전시당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이낙연 두 분의 상임선대위원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우희종·이종걸 공동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비례대표 후보님들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대전시당에서 지난 화요일에 대전의 혁신성장을 위한 3대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전을 대한민국의 의료·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 완공과 지선 연결을 통해서 교통을 혁신하자는 이 세 가지 혁신성장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위한 공동정책공약을 발표하게 된다. 이 문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대전 시민들께서 힘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자고로 충청도는 국토의 중심으로서 국가의 균형과 중심을 잡았다고 얘기한다. 이제는 그 중심을 국정 안정에 몰아주시길 바란다.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와 여당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충청도민의 힘을 기대하겠다. 오늘·내일 사전투표, 4월 15일 본 투표에서 충청도민의 압도적 지원을 부탁드리겠다.

•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대전 지역 후보 집중 지원유세

- 일자 : 2020. 4. 10. (금) 오전 11시 / 동구 원동 대전중앙시장

(※이종걸, 우희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등 동행)

- 내용 :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대전 시민들에게 원외 후보자 3인, 장철민(동구) 후보, 황운하(중구) 후보, 박영순(대덕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4월 10일 오전, 동구 중앙시장에서 대전 지역 원외 후보자들을 위한 집중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4월 10일, 중구 황운하 후보 캠프 사무실을 방문해 원외 후보자 3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전시당 - 기관 정책과제 전달식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과제 전달식
 - 일시/장소 : 2020. 3. 12. (목) 오전 10시 / 시당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들이 3월 12일 시당 회의실에서 조승래 시당위원장에게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 사회복지협의회 정책건의서 전달식
 - 일시/장소 : 2020. 3. 30. (월) 오전 10시 / 시당 회의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정책공약제안서 전달식
 - 일시/장소 : 2020. 4. 6. (월) 오전 10시 / 시당 회의실

■ 4·15 재·보궐선거 준비 및 활동내용

- 4·15 재·보궐선거 후보자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3. 30. (월) 오후 2시 / 시당 회의실
 - 내용 : 조승래 시당위원장과 4·15 재보선에 출마한 박수빈(서구 제6)대전시의원 후보, 김동성(서구 나)구의원 후보, 신혜영(서구 바)구의원 후보, 송재만(유성구 다)구의원 후보 등 4명의 출마자들이 간담회 개최. 이 날 간담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사회적 연대는 더욱 가까워져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면서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당부. 출마자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보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조승래 시당위원장과 4·15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이 3월 30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후보자 주요 선거운동



4·15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각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 시민경청 좌담회 개최

• 목적

- 총선 결과에 대한 의미와 지역 역점 과제들을 되짚어보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로 시민경청 좌담회 마련

• 개요

- 일시: 2020. 5. 26. (화) 오후 2시 (100분)
- 장소: 대전시의회 대회의실(4층)
- 주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참석자: 권선필 교수(목원대 행정학과), 조승래 시당위원장(좌장), 장철민(동구 국회의원), 전원식(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경제), 남승훈(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과학), 최호택(배재대 교수-학계), 강제일(중도일보 기자-언론)

• 좌담회 내용 및 결과

- 이번 시민경청 좌담회에서는 4·15 총선이 가진 의미와 향후 대전 지역과제들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권선필 교수는 기초발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전 지역 구(7석)를 석권한 것과 관련,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역할과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정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후보 선출과 ‘원팀’으로서의 선거운동 지원 등을 요인으로 꼽음. 또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요구사항은 ‘정치의 정상화’였으며 이에 향후 21대 국회에서 지역 책임정당으로서 지역 이슈 관리와 정책개발 및 제안,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지역 이익의 대내적 조정과 대외적 대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반영하고,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한 정치적 스케줄을 잘 정리해 추진해나가는 것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힘



조승래 시당위원장 외 패널, 당원, 시민들이 '4·15 총선 의미와 대전지역과제 시민경청 좌담회'를 진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선필 교수 발제내용

4·15 총선 결과의 의미와 지역과제

권 선 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4·15 총선 결과

당선자	득표수	득표율	비례대표					
정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득표수	17,626표	249,771표	260,908표	75,933표	61,478표	42,323표		
(득표율)	(2.27%)	(32.25%)	(33.68%)	(9.80%)	(7.93%)	(5.46%)		
동구	2.59%	34.52%	33.85%	8.58%	6.57%	4.68%		
중구	2.32%	35.73%	32.56%	8.49%	7.24%	4.89%		
서구	2.23%	31.66%	33.76%	9.89%	8.34%	5.65%		
유성구	1.97%	28.73%	34.02%	11.64%	9.41%	6.44%		
태백구	2.56%	33.42%	34.15%	9.09%	6.46%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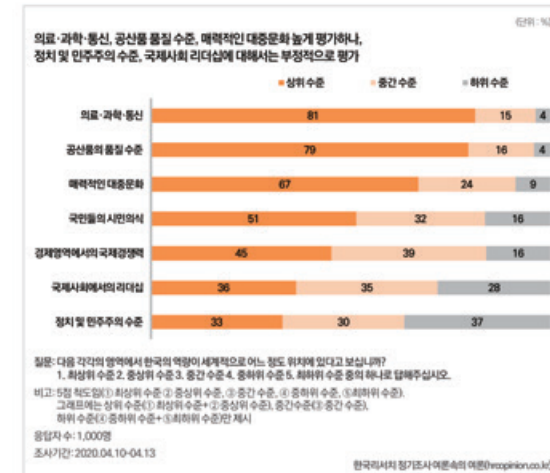
대통령 – 국회 – 시장 – 지방의회 – 국회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지역 정치사상 유래가 없는 1당 지배의 시대가 열렸음

총선 승리 요인

- 진정성 있는 대통령
 -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 문제해결하는 정부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
- 민주적 절차와 방법
 - 경선과 비례당 이슈 당원투표
- 원팀으로 선거운동
 - 다선의원원의 신인 지원활동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야



정치의 정상화: 유권자의 요구

- 지역도 정당도 아닌 '정치의 정상화' 유권자의 제1요구 사항



기본에 충실한 국회의원



헌법상의 의무

- 검직금지 의무(헌법 제43조)
- 청렴의무(헌법 제46조)
- 국익우선의무(헌법 제46조)
- 지위남용금지 의무(헌법 제46조)



국회법상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 의사 법령·규칙 준수 의무

지역책임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

- 지역 이익의 대내적 조정과 대외적 대변
 - 지역 이슈 관리
 - 정책개발과 제안
 - 정책문제 정의 및 대안 개발
 - 미래 비전과 전략 제시
-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고 선출직 공직자를 배출
 - 정치 교육과 정치 리더의 양성
 - 정치 교육의 주체
 - 홍보를 통한 유권자 관계 개선

지역 발전을 위한 거시적 전략

- 한반도 중심도시로 대전
 - 교통과 물류, 정보의 중심성 강화와 이를 지원하는 SOC확충
 - 지식정보허브화: 자원으로 지식정보가 아니라 활동으로 지식정보 관점에서 -> 정규교육, 평생교육, 교육이벤트, 역량강화를 포함하는 활동의 허브화 이러한 활동과 연계되는 문화와 관광 촉진
- 도시 발전 전략
 - 도시 기반: 물, 공기, 에너지
 - 기본 생활: 먹거리, 주거, 공공의료, 교육
 - 경제 기반: 지역순환경제 (내발적 발전, 지역순환에 방점)
 - 지역 경쟁력: 바이오 의학, 디지털, 지식산업

현안과제 해결

- 도시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
 - 4차산업혁명 도시?
 - 포스트코로나 선도 도시?
- 차별화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필요
 - 단임시장, 불안정한 정당구조 및 선출직, 순환보직으로 지속성이 없는 공무원, 지역 싱크탱크의 부재 등으로 지역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부재한 상태
 - 대규모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동원이 불가능한 현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대구: 하계U대회 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부산 해양도시특별법 추진 등)





II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백서

제21대 총선 관련 활동

01. 대전시당 추진 활동사항

▶ 02. 대전시당 제21대 총선 정책

03. 논평·보도자료·브리핑

04. 선거구별 활동사항

02. 대전시당 제21대 총선 정책

■ 대전시당 11대 공약

1.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 기존 신도시 개발형 혁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도심 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완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2. 대덕특구 재창조 본격화 사업

- 대덕특구를 연구소-기업-시민이 협업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융복합 혁신지구로 육성
- 공공과 민간이 융화된 도시형 글로벌 혁신공간 구축으로 대전에서 발화된 혁신 역량을 국·내외로 확산

3. 대전형 좋은 일터 사업 확대

- 대전형 좋은 일터 사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 관계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문화 개선 등을 통한 노사 상생문화 조성 5년간 총 750개(매년 150개) 기업 지원

4. 대전의료원 설립

-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로써 대전의료원 설립
- 의료 공공성 강화로 의료소외계층 건강권 확보 및 시민 건강증진
- 국가적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 구축

5. 대전교도소 이전 신속 추진

- 대전교도소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의 적극적인 정비로 통한 도심 활성화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도안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서남부지역 도시 완성

6. 대전 도심권 순환도로망 구축

- 교통 혼잡시간대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 견인
- 순환도로망 연결을 통한 매년 증가추세인 교통혼잡비용('15년 기준 1조 2,869억원 / 2010년 대비 16.1% 증가) 절감 효과

7.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대전·충북·세종 광역 생활권 조성 및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
- 충청권 교통·물류 혁신과 상생발전에 큰 기여

8. AI-스마트랜드 조성

- 생활 전반에 활용된 최첨단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 과학기술을 활용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으로 과학도시 대전 위상 제고

9.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세수 증가분을 인구밀집 도심지역 보관 방폐물에 대한 시민 안전대책 재원 등으로 활용
-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으로 시민 소외감 해결과 감시 권한 부여에 따른 신속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체감도 향상

10.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원 시스템 구축

-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1천억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7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 미래 유망 먹거리 유전자 바이오산업 선도 기반 확보

11. 신기술 테스트베드 조성

- 우수한 신기술이 초기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도모
-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적 여건, 부지 활용도 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활용방안으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제고



II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백서

제21대 총선 관련 활동

01. 대전시당 추진 활동사항
02. 대전시당 제21대 총선 정책
- ▶ 03. 논평·보도자료·브리핑
04. 선거구별 활동사항

03. 논평·보도자료·브리핑

■ 언론대응

• 시당 차원의 언론대응

- 1차 선대위 회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
- 2차, 3차 선대위 회의는 지역 언론 풀(Pool)기자단으로 구성하여 홍보

• 제21대 총선기간(2020. 3. 6. ~ 4. 20.) 대언론홍보 강화

- 총 30건 : 보도자료 17건, 논평 12건, 성명 1건

날 짜	구 분	제 목 / 내 용
03. 06. (금)	성명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대전의 혁신도시 시대 도래를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03. 09. (월)	논평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의 과거 일탈 의혹, 철저한 사실 규명 있어야
03. 12. (목)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대덕구 “우리는 원 팀”
03. 12. (목)	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더불어민주당에 정책과제 전달
03. 13. (금)	논평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총선 후보자 확정,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할 것
03. 16. (월)	보도자료	조승래 시당위원장, 대전시에 주민 불편 초래 각종 조치 유예 요청
03. 19. (목)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코로나19 극복 위한 ‘마켓 챌린지’캠페인 실시
03. 20. (금)	보도자료	조승래 시당위원장, 대전시 긴급 추경안 ‘과감·긴급·적시적’ 편성 건의
03. 22. (일)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대전 총선 주자 한 자리…코로나19 극복, 총선 필수 결의
03. 23. (월)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대위 출범…총선 필수 결의
03. 23. (월)	논평	코로나19 위기 대책 포함된 대전시 추경안,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이어져야
03. 24. (화)	보도자료	민주당 대전시당, 코로나19 극복 위해 캠프 선거비용 신속집행 결의
03. 30. (월)	보도자료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4·15 재선도 승리 다짐
03. 30. (월)	보도자료	대전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4·15 총선 복지대전 의제’ 전달
03. 31. (화)	보도자료	“일잘하는 1등 정당에 힘을”…대한민국미래준비 선대위, 정부 여당지지 호소
04. 01. (수)	논평	국민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으로 평가받겠다. 기회주의자와 야합하는 정당은 반드시 심판해야
04. 01. (수)	보도자료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연대 협약
04. 02. (목)	보도자료	“국민을 지키겠습니다!”…총선 후보들 ‘시민과 함께’ 선거운동 돌입
04. 05. (일)	논평	근거 없는 비방과 정치공세만 늘어놓고 지역을 무시하는 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04. 07. (화)	보도자료	대한민국미래준비 선대위, 대전 미래 혁신성장 동력 3대 플랜 발표

04. 08. (수)	보도자료	이해찬 대표 깜짝 대전 방문 “대전 총선 승리 위해 최선 다 해달라”
04. 09. (목)	논평	소중한 권리행사인 사전투표, 시민의 단결된 역량과 힘을 기대한다
04. 11. (토)	논평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뜬금포 방문, 흑색선전과 정치적 모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미래 통합당은 대전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04. 12. (일)	논평	이완구 전 총리의 근거 없는 저주와 공포조장,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04. 13. (월)	논평	대전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도심삼총사, 선택하면 변화합니다.
04. 13. (월)	논평	막말과 네거티브로 선거 물들이려 하는 미래통합당의 자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04. 14. (화)	보도자료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단 “시민들의 결집되고 깨어있는 힘 투표로 보여달라”
04. 16. (목)	논평	깨어있는 시민의 승리, 더욱 겸손하게,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4. 16. (목)	보도자료	민주당 대전 당선인들, “코로나19 위기 극복 매진하겠다”
04. 20. (월)	논평	미래통합당의 터무니없는 총선 불복 움직임, 시민의 눈이 두렵지 않은가

성 명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대전의 혁신도시 시대 도래를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대전시민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다른 안건 처리와 관련해 다소 난항을 겪으며 6일 밤늦은 시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이의 가슴을 줄이며 어렵사리 통과됐지만 오늘은 국가균형발전 시대의 완성을 연, 역사적인 날이자, 대전시민과 충청인의 염원이 실현된 아주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과 충청도민들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발걸음을 묵묵히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대전과 충남도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정이 필수불가결의 명제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균특법 국회 통과를 어찌 보면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염원 덕분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184만 명이 혁신도시 지정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지역민의 의지는 강력했고 뜨거웠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은 범시·도민적이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시·도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정치권도 이런 지역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실로 오랜만에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진정성을 보여 줬습니다. 이러한 정파와 경계를 초월한 상호 협력과 협치는 법안 통과로 얻은 또 하나의 결실이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혁신도시 시대 도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법안인 균특법 개정안 통과라는 성과와 함께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곧 법이 시행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혁신도시 최종 결정까지 내딛어야 할 발걸음이 아직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전에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대전이 가진 인프라와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을 유치했을 때 이주자 대책 등 내실 있는 준비작업도 대전시가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구난방으로 서로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각자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역량을 한 데 모아 현안을 관철했듯이 공공기관유치 과정에서도 명분이나 논리를 명확하게 하고, 단일하고 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모든 구성원은 대전시와 함께 대전의 온전한 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응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전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온 열정과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승래

논 평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의 과거 일탈 의혹,
철저한 사실 규명 있어야

대전 중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지난 과거 공직자와의 도박과 도박장 개설, 금품 수수 등의 일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인터넷매체인 <대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두환 전 중구의회 의원은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장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달 27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은권 의원은 지난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당원협의회 사무실과 개인 사랑방에서 당원 및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도박(일명 고스톱) 장소로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다른 건으로 특정 공직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김두환 전 중구의원은 폭로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을 수행하기에 도덕적 해이를 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워낙 사안 자체가 천박하기 그지없어 과연 이런 사람이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챙기며 중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의혹 자체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은권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응했다고 전해진다. 이 의원은 앞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월 22일 대전지검이 한 지역 건설사로부터 법인자금 3000만 원을 후원회를 통해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은권 의원의 보좌관 A씨(44)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 관련 법규를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측근이 이와 같은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과 만난 적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신 적도 없으며 (보좌관이) 조사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저 “모른다”, “말도 안 된다”는 말로만 무마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하다.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 사안이 매우 위법적이고, 각각 돈과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반드시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이 의원을 중구 지역구에 단수 공천 했다. 의혹 제기를 넘어 검찰의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애써 무시하는 것인지, 지역구민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와 검찰은 이은권 의원과 관련한 의혹 제기와 고발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최영석

보 도 자 료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 대덕구 “우리는 원 팀”

중구·대덕구 경선 주자들, 12일 경선 승복 및 총선 승리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조승래 시당위원장 “공정 경쟁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경선에 이어 총선 승리 함께 견인하길”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 중구와 대덕구 경선 후보들이 아름다운 경쟁을 통한 결과 승복과 함께 ‘원팀’으로서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로 서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경선 지역인 중구와 대덕구 후보들에게 공정경쟁과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 그리고 모두 함께 총선 본선 승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을 제안했고 예비후보 모두가 이에 동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선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송행수·전병덕·황운하 예비후보와 대덕구-박영순·박종래·최동식 예비후보 모두는 이날 각각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공정한 경선과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구성원 모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상식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데 뜻을 같이한다고 믿는다”며 “경선을 치르고 있는 두 지역에서 앞서 다소 과열된 분위기도 있었지만, 대전의 변화와 발전, 문재인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선 주자들의 이번 공동선언 서명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특정 장소에 모이지 않고, 각자 현장과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2020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 도 자 료

중소기업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더불어민주당에 정책과제 전달

조승래 위원장 “중기 어려움 체감…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한 정책 대안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승래)는 12일 지역 중소기업계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 받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실천을 약속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시당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지역회장 전원식)으로부터 ‘제21대 총선 정책과제’(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를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서 지역 중소기업계는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및 기초 지자체 조례 제정 ▲대덕특구 중소기업기술이전센터 설립 ▲소상공인포럼 운영 및 우수 소상공인 인증지원 ▲자동차정비업 총량제 도입 등 대전 지역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 위기 및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은 활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건의를 모아 이번 정책과제집에 담은 만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시민의 생활 경제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분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인 만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 등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체감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래 방식이 아닌 특별한 처방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특별한 처방과 대안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키워가면 서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는 제헌의회에 버금갈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제안한 정책대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 평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총선 후보자 확정,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할 것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대전 7개 지역구 총선 주자들이 모두 확정됐다. 지난 12일 중구와 대덕구 경선을 마지막으로 동구에는 장철민, 중구는 황운하, 서구갑 박병석, 서구을 박범계, 유성구갑 조승래, 유성구을 이상민, 대덕구-박영순 등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총선 주자로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종 선택의 과정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은 예비 주자들도 선전을 응원하며, ‘원팀’으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 믿는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제헌 국회에 버금갈 정도의 변화가 절실한 매우 중요한 선거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역대 최악의 국회를 경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7명의 총선 주자들은 대부분 국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후보의 자리에 섰다.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국민과 시민께 일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각각 시작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세계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의 감염증 확산과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와 온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차분히 이겨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구 월평2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한 노부부가 “코로나19 피해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원을 쾌척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매달 조금씩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면서도 오히려 “액수가 너무 적어 미안하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유성구 구즉동에서도 ‘대구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메모와 함

께 커다란 돼지저금통을 두고 간 따뜻한 이웃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등 우리 곳곳에는 따뜻한 가슴으로 나보다 더 타인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들이 있어 우리는 이 위기를 더욱더 빠르고 안전하게 극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시국임에도 터무니없는 비방과 남 탓만 하면서 국민을 오도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비방과 비난, 거짓 호도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날로 더 해지고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한결같이 보여줬던 폭력과 횡방, 몽니, 장외집회와 선동으로 국회 밖을 물들이며 국민을 외면했던 모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치가 아닌 정략과 정쟁에 몰두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일하는 정치, 사람이 우선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이다. 각 지역구에 당을 대표해 나선 총선 주자들의 각오 또한 모두 이와 같을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함께 따라운 조언과 아낌없는 지지를 기대해 본다.

국민이 승리하고, 시민이 승리하는 총선으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모든 구성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7명의 총선 주자들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20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최영석

보 도 자 료

조승래 시당위원장, 대전시에 주민 불편 초래 각종 조치 유예 요청

코로나19 극복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각종 세금·과태료 유예 및 자제 당부
조승래 시당위원장 “주민 불편 주는 각종 규제·행정행위 덜어내는 특단대책 필요” 판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6일 코로나19 극복과 관련 대전시에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전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지역의 중소기업,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대출상환, 주차단속 과태료 같은 교통벌칙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여러 행정행위를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유예 또는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돌봄·교육TF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이날 요청과 관련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은 이전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보다 더 길고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비상한 체제로 하루하루 대응하고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피해업종이나 주민에게 짐이 되는 각종 규제나 행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밖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급하게 투여해야 할 민생 분야를 조사해 이를 반영한 추경안에 대한 의견도 대전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0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 도 자 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코로나19 극복 위한 '마켓_챌린지' 캠페인 실시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조승래 시당위원장 시작으로 릴레이 캠페인 조승래 “희망 메시지 전달하고파” ... 박병석·이상민·박범계 국회의원 ‘마켓_챌린지’ 참가요청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승래)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_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SNS에 “몇 년 전 루게릭 환우들을 돕기 위한 기부 릴레이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 영세 상인들에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켓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위원장은 지역 소규모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진과 함께 박병석(서구갑)·이상민(유성구을)·박범계(서구을) 국회의원에 릴레이 인증 참여를 요청했다. 더불어 같은 지역의 민태권·오광영 대전시의원에게도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마켓 챌린지 캠페인 진행과 함께 “선거 캠페인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주는 위기 극복 캠페인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진행하는 ‘#마켓_챌린지’ 캠페인은 제안을 받은 사람이 지역 전통시장이나 상가,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을 이용한 뒤에 SNS에 인증 사진(인증샷)을 올리고, 또 다른 3명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0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 도 자 료

조승래 시당위원장,
대전시 긴급 추경안 ‘과감·긴급·적시적’ 편성 건의

20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추경안 편성 긴급생활자금 및 각계 지원 방안 등 의견 전달

조승래 “섬세한 추경 편성과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해 만전 다해달라” 요청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은 20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한 중심 원칙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대전시 추경안은 정부의 2차 추경까지의 범퍼(완충) 역할을 하고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소비 진작을 촉진하는 수단을 동원하며 15일 이내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이 주요할 것”이라며 “특히 과감성, 긴급성, 적시성이라는 관점에서 긴급생활자금과 운영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방안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전달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학원이나 어린이집, 개인택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과 강사, 프리랜서 등 자유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청년일자리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특히 이번 대전시 긴급 추경은 정부의 50조 원 금융지원과 패키지로 필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경제의 실질적 고통이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보증심사 기간 단축을 통한 금융지원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는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폐쇄와 선결제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진작 운동 전개 방안도 제안했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번 대전시 추경안 편성 의견 전달과 관련 “대전시의 비교적 철저한 대응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위기 심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전시가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 엄중하고, 위급한 시국임을 인식해 섬세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힘을 보태고자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의 요청을 4·15 총선 후보들과 공유, 추가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이날 대전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2020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 도 자 료

더불어민주당 대전 총선 주자 한 자리 … 코로나19 극복, 총선 필승 결의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7인
22일 대전시당서 코로나19 대응 및 총선 필승 방안 논의

코로나19 극복 염원 담아 정부 대책 협력 및 대응방안,
대전의 새로운 도약 위한 대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총선 후보 7명이 코로나19 관련 공동 대책 방안 모색과 향후 총선 전략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22일 한 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유성구갑)을 비롯해 박병석(서구갑)·이상민(유성구을)·박범계(서구을) 국회의원, 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영순(대덕구)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1시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을 모색하고, 공동 선거 전략 및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는 등 총선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 청취 및 해소 ▲일방적 선거캠페인 아닌 소비 진작 등을 창출하는 위기 극복 캠페인 전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이름 없는 영웅들과의 연대와 응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 가지 선거 캠페인 원칙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전시에 대전시 긴급 추경을 통해 정부의 50조원 금융지원과 패키지로 필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경제의 실질적 고통을 해소하고, 과감성, 긴급성, 적시성

이라는 관점에서 15일내에 긴급 생활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원은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과 금융과 정부 관료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박병석 의원은 “전 방위적이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현상에 있어 우리 국민은 생계형 절벽을 느끼고 있고 기업과 산업은 근본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식하락으로 중산층은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는 비상경제대책의 키워드는 과격적이라고 할 만한 ‘과감한 조치’와 ‘신속한 집행’, 이에 따른 금융기관과 정부 관료들에 대한 ‘면책범위의 확대’ 등 세 가지 핵심사항을 염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바이러스 연구소 유치를 통해 감염병 예방의 근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엄중한 시기이자 비상한 시국인 코로나19 사태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평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방역에 필요한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이 시기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 대한 특별하고 비상한 대책 세워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안전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하고 감염병의 근본치료제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당원들과 함께 직접 만든 면 마스크 1000개를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로 전달한 상황을 전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착한 소비운동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더 걱정인데 추경에 이어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50조원 규모 특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다. 또 전국 곳곳에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착한 소비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적극적 지원과 착한 소비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역 4명의 국회의원만으로 부족하다. 대전에서 7명의 국회의원 만드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모든 서민 경제 살리는 길이라고 호소 드리고 싶다”며 “대전 7개 지역구 전원 승리를 가져오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철민 동구 예비후보는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했다.

장철민 예비후보는 “대전시민들의 모범적인 대처로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여 천만다행이지만, 대전에서도 대구 같은 감염병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할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대전에서 대구 같은 사태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하다”며 “미래통합당 이장우 후보는 지난 2007년 구청장 재직 시절, 가오동 대전의료원 예정 부지에 용도변경까지 해 가며 700억짜리 호화 구청사를 지었고 13년이 지난 아직도 돈을 갚게 하고 있는 등 대전의료원 건립을 못하게 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병원 기능을 대전의료원에 포함하여 타당성을 높이면 할 수 있다”며 “미래에 올 위험에 미리 대응하는 정책을 하겠다. 누구보다 발 빠르고 스마트하게 움직이겠다”고 호소했다.

황운하 중구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구에서 불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외신에서 소개하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추경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규모와 내용 면에서 좀 더 과감하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당장 발등의 불부터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며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강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서로 합심하고 단결했다”며 “건물주들이 나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며 그것을 실감했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임대료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국민 성금’과 ‘기부 릴레이’ 같은 더욱 따뜻한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대덕구 예비후보는 “코로나19가 거의 모든 사회와 경제활동을 일시에 중지 시키고 있다.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긴급 재난생계수당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이 막연한 고통과 불안에 떨지 않도록 힘이 되어 드리는 것이 정치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 한다”며 “소득 1분위에서 6, 7분위까지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생계수당’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2차 추경이라도 긴급 편성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재난기금을 풀어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과 국회, 정부, 대전시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은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과 긴급생활자금 지원문제 등 코로나19 극복과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에서 내 놓은 50조원이 넘는 민생·금융지원방안과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의견도 함께 했다.

이날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총선 주자들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아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적힌 손 피켓으로 재난 극복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잠식을 위한 엄중한 시기인 만큼 후보자 외의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진행했다.

2020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 도 자 료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대위 출범 ... 총선 필승 결의

23일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본격적 활동 돌입

조승래 공동선대위원장

“실무 중심 작은 선대위 구성...시민과 함께 위기 극복 의지도 담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승래)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3일 제21대 총선 필승을 위한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의 대한민국미래준비 선대위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대전미래실천위원회(각급위원회)와 고문단이 자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꾸렸으며, 종합상황실과 대변인실이 실무를 총괄하고 부정선거감시단과 전략기획단, 법률지원단, 홍보미디어지원단, 조직·유세지원단 등 실무 중심의 분야별 지원체계를 갖추는 등 총 200여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대전시당의 이번 선대위에는 ‘코로나 대책추진단’이 구성돼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이번 선대위 구성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다.

대전시당의 대한민국미래준비 선대위 구체적인 구성원을 보면 조승래(유성갑) 대전시당위원장과 박병석(서구갑)·이상민(유성구을)·박범계(서구을) 국회의원,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된 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영순(대덕구) 예비후보, 김용복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등 총 8명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특히 김용복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의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합류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정책적 연대사를 분명히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거대책본부 공동선거대책 본부장으로는 권오철·송행수·전병덕·안필용·김종남·박종래·최동식 등 국회의원 선거 도전에 나섰던 경선 주자들로 구성됐다.

공동선거대책본부 부분부장단에는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의회 의장과 ▲유인봉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대전지역버스노조위원장 ▲박병국 한국타이어 노조위원장 ▲배영옥 전 대전시 성평등기획 특보 ▲김점훈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이복섭 서구갑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등 시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과 위기관리 자문 역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꾸려진 ‘코로나 대책추진단(단장 김점훈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실무부단장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조승래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미래준비 선대위 발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선대위 구성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대규모 선대위 구성보다는 실무 중심의 작은 선대위로 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시·구의원들을 ‘코로나 대책추진단’에 집중 배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극복에 대한 열망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서로 혈투고 비난하는 선거전이 아니라 공동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힘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고 성심과 성의로 임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성원에 보답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모처에서 이번 총선 경선 탈락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대위 참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한민국미래준비 선대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별도의 선대위 출범식은 열지 않기로 했다.

2020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 평

코로나19 위기 대책 포함된 대전시 추경안,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이어져야

대전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 23일 23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골자로 하는 경제회생·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시가 마련한 이번 추경안은 긴급 재난생계지원을 비롯해 비상경제대책본부 구성, SOC 사업 조기 발주와 구내식당 운영 한시적 중단, 및 지역상품 판매 촉진 운동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닥친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소비 침체를 진작하려는 중심 기조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공식 제안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방향, 즉 과감성과 긴급성, 적시성 중심의 기조가 대부분 반영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20일 “이번 대전시 추경안은 정부의 2차 추경까지의 범퍼(완충) 역할을 하고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소비 진작을 촉진하는 수단을 동원하며 15일 이내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이 주요할 것”이라며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추경안 편성에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시당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과 개인에 대한 지원, 정부의 50조원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한 시민 경제의 실질적 고통 해소 등을 제안했다.

대전시도 이에 부응해 코로나19 피해를 선제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핵심목표로 ‘피해극복’과 ‘경제회생’, ‘공동체 회복’을 위한 4대 전략으로 ‘함께하는 민생안정’, ‘다시 찾는 경제 활력’, ‘시민동행 내수회복’, ‘최대 규모 재정투자’로 설정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전시의 추경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하고, 빠른 집행이 중요할 것이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의회도 시가 제출한 추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며, 대전시도 신속한 집행으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코로나19지만, 위대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꿋꿋하고, 신속하며, 모두 하나 된 협조적인 모습으로 극복하고 있어 세계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 대전이지만, 위축된 지역경제와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이나 대책은 넘치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고난 극복을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하고, 독려하며,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전시의 이번 추정안에 적극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현재의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협조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0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최영석

보 도 자 료

민주당 대전시당, 코로나19 극복 위해 캠프 선거비용 신속집행 결의

민주당 대전 총선 캠프, 지역 업체 이용 및 각종 선거비용 선결제, 신속집행하기로
23일 조승래 시당위원장 제안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과 함께 극복의지 담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7개 지역 총선 캠프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각종 선거비용을 선결제 및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승래)에 따르면 23일 조승래 시당위원장의 제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선거회계와 관련한 신속한 비용지출과 선결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영순(대덕구) 예비후보와 박병석(서구갑)·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이상민(유성구을)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전 총선 출마 주자 7개 캠프는 각종 공보물, 현수막, 유세차량 인도금, 사무실 임대료 등을 조속히 집행하는 선결제·신속집행과 동시에 지역 업체 이용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선거 또한 우리의 일상 중 하나인 만큼 특별함은 있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안으로 각 선거캠프에서 지출하는 가능한 모든 비용을 선결제 내지는 신속히 집행할 것을 제안했고, 각 캠프에서도 이에 흔쾌히 동의해 곧바로 실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조승래 시당위원장을 필두로 지역 소상공인 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 캠페인인 ‘#마켓_챌린지’를 지난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0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 도 자 료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 4·15 재보선도 승리 다짐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30일 4·15 재보궐선거 후보자들과 간담회
조승래 “비상한 각오와 신념 4개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하기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4개지역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4·15 재보궐선거에 출하는 박수빈(서구6) 대전시의원 후보, 김동성(서구나) 서구의원 후보, 신혜영(서구바) 서구의원 후보, 송재만(유성다) 유성구의원 후보 등 4명의 출마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비상한 각오와 신념으로 4개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북돋을 필요가 있다”며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이번 위기로 상처 받고, 힘겨워 하는 주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뜻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록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적 연대는 더욱 가까워져야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면서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수빈, 김동성, 신혜영, 송재만 후보 등 4개 지역 재보궐선거 출마자들 또한 조 위원장의 이러한 당부에 대해 공감하고, 모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기치로 4·15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20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 도 자 료

대전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4·15 총선 복지대전 의제’ 전달

30일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에게 대전의료원 설립 등 복지대전 정책 실천 당부
조승래 “총선 승리로 복지대전 의제 정책 반드시 담아내겠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주환)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경희)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복지 대전을 위한 정책 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당부했다.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이경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30일 오전 9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을 방문해 ‘4·15 총선 복지대전 의제’에 대한 정책 설명과 더불어 정책 반영을 부탁했다.

양 기관은 제안서를 통해 국민중심, 시민중심, 복지중심의 21대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복지 대전 실천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 ▲대전사회복지회관 신축 ▲사회복지시설별 적정인력 확보 ▲사회복지사의 동일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사회복지시설 긴급 보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정책 내용을 청취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중심 가치는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데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세상을 만드는 가장 일선에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복지 대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담아내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제안한 정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 도 자 료

“일 잘하는 1등 정당에 힘을” … 대한민국미래준비 선대위, 정부 여당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대위, 31일 총선 필승 전략 및 각오 다지기 국난 극복과 경기 회복의 길은 ‘국정 안정’…“힘 있는 정부 여당에 힘 실어달라” 지지 당부

“일 잘하는 1등 정당. 대전은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펼쳐지는 이번 총선에서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긴급 재난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의 조기 종식과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등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여당’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로 했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유성구갑)과 박병석(서구갑)·박범계(서구을) 국회의원, 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영순(대덕구) 후보 및 김용복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등 공동선대위원장단은 총선을 보름 앞둔 이날 오전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4·15 총선 필승을 위한 각오와 전략을 논의했다.

공동선대위원장단은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힘 있고 일 잘하는 정부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온전한 안착과 양질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강하고 힘 있는 여당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래 공동선대위원장(유성구갑)은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강한 대한민국’, ‘강한 정부 여당’에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는 1차 추경안을 편성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 시키고 저소득층, 유치원 긴급지원 등 민생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대전시에

서도 추경안을 편성하여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31일)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소득 하위 70%이하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지만 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국회의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여당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여 강한 대한민국, 강한 정부 여당을 만들어야 한다. 다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 잘하는 1등 정당을 입증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김용복 공동선대위원장(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속한 노동자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공조 의지를 표명했다.

김용복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노동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의 직접지원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친노동자 정당과의 정책공조로 곳곳에 산적한 노동현안을 극복하며 노동의 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한국노총 5만 조합원과 함께 하겠다”고 피력했다.

박병석 공동선대위원장(서구갑)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이 의료진과 시민의 높은 의식, 국민의 효율적 대응으로 진정 국면으로 빨리 들어가길 원하고 있다”며 “우리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국제적인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제 경기 활성화도 세계 모범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위원장은 “경기 활성화에서 세계 모범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정의 안정이 필수”라며 “촛불시민혁명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할 수 있고, 정부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국의 안정 없이 경제 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가능하고 신속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취함으로써 우리 경기 회복에도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공동선대위원장(서구을)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이후 민생경제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위축된 소비심리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조세정책 마련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제 손으로 만들고 제가 통과시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지정부터 공공기관 이전까지 완료 하겠다”며 “민주당이, 7명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 이루겠다. 양질의 공공기관 대전에 유치하고 1기 혁신도시의 그 훌륭한 성과를 이제 대전도 가져가야 한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장철민 공동선대위원장(동구)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발 경기 침체와 위기를 심하게 겪는 중이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른 일”이라며 “위기 극복은 국정 안정으로부터 온다. 이런 때인 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이 여당에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철민 위원장은 “변화는 또한 힘으로부터 온다”며 “동구와 다른 원도심의 변화와 대전의 발전은 힘이 있을 때 변화할 수 있다. 저희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원도심 발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이후 공공기관 이전은 동구와, 중구, 대덕구 지도를 바꾸고 앞으로 대전의 30년 후 지도를 바꿀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 시민이 동서격차 없는 함께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리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회의원 선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공동선대위원장(중구)은 “이번 선거는 개혁세력 대 수구기득권 세력의 싸움으로 힘겹게 이루어 놓은 개혁의 성과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느냐 아니면, 희망 열차를 타고 계속 앞으로 가느냐를 가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선거”라며 “개혁이냐, 수구기득권인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런 재난 상황을 문재인 정부는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잘 대응하고 있다. 이제 여당에 힘을 실어주셔야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관리는 잘 해 왔지만, 이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는 얼마나 계속될 지 알 수 없다. 여당에 힘을 실어 주셔야 한다”며 “우리 대전은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실력 있는 3선 의원과 재선 의원, 폐기만만한 초선 의원을 배출해 여당의 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순 공동선대위원장(대덕구)은 “코로나 위기로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 위기극복을 잘 할 수 있는 정부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정 안정을 통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영순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대전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 마련할 것”이라며 “모두 함께 땀땀 뭉쳐 지역발전에 아주 꼭 맞는 공공기관을 이전해 원도심에 활력과 대전 경제 부흥,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이날 회의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실천과 조기 종식을 위해 비공개·온라인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공동선대위원장 외의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손소독제 사용 등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

2020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 평

국민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으로 평가받겠다. 기회주의자와 야합하는 정당은 반드시 심판해야

내일(2일)부터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열 사흘간 대전 7개 지역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열전에 돌입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특별하지만, 꼭 특별하다고만 할 수 없다. 모두가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로부터 감염병 대응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는 이러한 모습은 정부와 의료진,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이제는 코로나19로 파생된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을 지키니다’, ‘코로나19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는 기치 아래 향후 코로나 조기 종식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정과 발걸음을 계속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개혁 세력’과 ‘수구 반(反)국민 기회주의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국민의 행복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기본 가치와 입장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우선인지, 아니면 자신과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인지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온 국민이 위기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해법을 찾고 아픔을 나누기도 모자란 이 때,

오직 자신들의 정치권력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회주의적 행태를 서슴없이 보이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대전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면서 보이는 행태는 기회주의적이고 이율배반적이다. 겉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면서도 분열과 불신을 가중시키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중부권 선대위원장은 총선 후보등록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한 지역 언론에 코로나19와 관련 “국민은 잘하는 데 정부는 무능하다”는 식의 어불성설을 늘어놓으며 정부와 국민을 ‘갈라치기’하려고 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궤변도 개의치 않는, 과연 ‘갈라치기’가 특기인 정당다운 발언과 입장이었다.

미래통합당은 또 자신의 정치적 야욕 해소를 위해 주민이 준 직책과 지역을 버리고 정당과 자신의 가치관까지도 수차례 바꾸고, 반복해 ‘카멜레온’으로도 불리는 사람을 여성·청년 총선 후보라며 자랑스레 추천했다.

최근에는 선거 때마다 명분 없이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며 다른 색깔의 점퍼로 바꿔 입었던 동구의 구청장 출신 정치인이 이번엔 ‘오렌지’색에서 핑크색으로 점퍼를 갈아입는다고 한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와 미래통합당의 기막힌 ‘콜라보’가 아닐 수 없다. 가히 불문곡직(不問曲直)이자 기변지교(機變之巧)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가. 미래통합당은 처음에는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하다가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 기류를 감지하자마자 이제는 “주려면 모두 줘야한다”는 애초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전시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동안 시민을 기만하고, 적당히 속여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촛불시민혁명과 반개혁 세력들의 억지, 국정 방해 세력들의 준동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 왔다. 이번 총선에서 대전시민은 국민을 기만하고 기회주의와 야합하는 세력은 반드시 심

관할 것이라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총선 후보들과 재보선 출마자들은 앞으로 최종 선택의 순간까지 대전시민에게 “국민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의 올바른 눈과 귀를 믿으며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2020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최영석

보 도 자 료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연대 협약

1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총선 후보 지지 및 정책협약
조승래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진정한 노동가치 실현, 권리 향상 이루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의장 김용복)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총선 후보들을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일 오후 2시 서구 둔산동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의 정책연대 협약식 및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정책협약서에는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후보자들의 승리와 노동가치 실현,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동 기본권 확립과 정당한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안전한 노동 환경 마련과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한 복지 증진 등 5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복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은 이어진 지지선언에서 “한국노총은 지역 사회의 당당한 노동 주체로서 노동정책의 후퇴를 저지하고 반노동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연대를 하게 됐다”며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되어야 사회도 버틸 힘이 생긴다”며 “오늘 협약과 연대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노동환경이나 여건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길이 되길 기원하며, 기대한다.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산적한 노동현안을 극복하고 노동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정책협약식에는 한국노총 대전지부 전국택시노련 대전지역본부와 전국항운노련, KT충남지방본부, 전국담배인삼노조 공영기업지부와 신탄진공장지부, 전국연합노련 대전지역본부, 전국화학노련 대전지역본부 등 산별노조 대표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2020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 도 자 료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 총선 후보들 ‘시민과 함께’ 선거운동 돌입

2일 대전시당서 ‘대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로 국난 극복 의지 피력 및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총선 후보들이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병석(서구갑)·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이상민(유성구을)·박영순(대덕구) 후보는 4·15 총선 선거운동 돌입일인 2일 오전 10시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대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함께 낭독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7명의 총선 후보들은 13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앞두고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고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심감과 희망이 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민의 저력과 역량을 믿고, 시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지키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완수하기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코로나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총선 후보들은 이 같은 내용의 대시민 호소문을 차례로 낭독하면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도시철도2호선 '트램'의 조기 착공과 지선연결 ▲대전의료원 조기건립과 세계적 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중양로 일원 첨단복합 창업특구 조성 ▲광역철도 1단계 구간 노선 역세권 개발 ▲국가 도시정원 '대전 센트럴파크'완성 ▲국제 온천관광 거점지구 유치 ▲유성구를 글로벌 테스트베드(미래시범도시)로 육성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대덕구 연축·신대지구를 혁신성장 거점혁신도시 완성 등 지역 대표 정책 공약도 함께 소개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용복 공동선대위원장(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은 지원 발언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노동 존중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며 “21대 총선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최선을 다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선거운동 첫날 후보 공동의 대시민 메시지 전략을 선택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 분위기에 함께하면서 조용하고,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을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대시민 호소문을 낭독한 후보들은 행사 마지막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대한민국 파이팅!’,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총선 승리!’라는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 총선 후보들의 대시민 호소문 전달식은 실내 행사로 계획된 만큼 후보자 외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케 했으며,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

2020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 평

근거 없는 비방과 정치공세만 늘어놓고 지역을 무시하는 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총선 후보들과 재보선 후보들은 국민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어느 때 보다 더 조용하고, 차분하게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정성은 마음에서 이어져 행동, 그리고 말로 표출된다. 국민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단순히 말뿐이라면 그 진정성은 위선이 될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러한 시국에 대전을 방문해 지역민의 요구와 아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공세만 늘어놓고 떠났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5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면 ‘경제 바이러스’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협박을 넘어 아예 저주를 퍼부었다. 이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나 비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정치 공세적 발언만 이어갔다.

미래통합당에게 대전은 그저 잠시 들러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가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에 온 것이 ‘대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을 위한 그저 하나의 ‘장소’에 불과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데 일조했던 인사들이 다수 규합한 정당이 통렬한 반성과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 없이 근거 없는 허상만을 좇으며 오직 정치공세에만 열중하니 언어도단이 따로 없다.

대전시민은 근거와 실체가 없는 폭정과 불안, 공포를 조장하고, 적당히 정치적 프레임으로 재미를 보려는 세력에게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민의 아픔과 고통에 적극 공감하고 소통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그 이후를 위한 대전의 미래 비전을 차분히 제안할 것이다. 단순히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과연 어떤 정당이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지, 또 해묵고 근거도 없는 정치공세만 펼치는 것이 아닌, 희망을 제시하는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오직 국민과 대전시민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신념을 시민의 확신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

보 도 자 료

대한민국미래준비 선대위,
대전 미래 혁신성장 동력 3대 플랜 발표

7일 시당 선대위 3차 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들 대전 미래 위한 3가지 비전 브리핑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의료·바이오산업 전진기지 구축
·트램 조기 완공, 지선연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전의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3대 플랜을 발표하는 등 대전의 새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병석(서구갑)·조승래(유성구갑)·박영순(대덕구)·김용복(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3차 선대위 회의를 열고 ‘대전 미래 혁신성장 동력 3대 플랜’을 발표했다.

장철민, 황운하, 박영순 선대위원장 등 원도심 세 후보가 차례로 발표한 대전 미래 혁신성장 동력 3대 플랜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전을 대한민국 의료·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 완공과 지선연결로 대전을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지화, 과학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대중교통의 혁신이다.

대전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대비해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다수 유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화 중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년 11월 12일)로 지정됨에 따라 바이오산업 특화분야 유치를 통해 이를 대전의 유망 먹거리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방편으로 유전자 의약산업 진흥센터와 세계적인 바이러스연구소를 설립해 스마트 헬스 케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국가적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산·학·연·병 연계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중교통 혁신화와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완공과 지선연결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에 힘쓰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 대전이 혁신 성장 동력을 발동시켜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선대위원장단은 모두발언과 이어진 회의에서 총선 D-8일을 맞아 총선 선거운동 상황과 여론 반응 등의 추이를 점검하고, ‘국민을 지킨다’와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힘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020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 도 자 료

이해찬 대표 깜짝 대전 방문 “대전 총선 승리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

8일 이해찬 당 대표 대전시당 방문, 장철민·황운하 후보 만나 총선 승리 당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당 대표)은 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을 방문해 원도심 총선 후보들과 당직자들을 격려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일정을 마친 뒤 귀경하던 중 오후 2시 20분께 대전시당을 깜짝 방문했다.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장철민 후보(동구)와 황운하 후보(중구) 등 원도심 후보들로부터 현재 지역의 민심동향과 선거운동 상황, 지역의 핵심 쟁점과 숙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동구, 중구가 원도심이라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고 소상공인도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인 만큼 후보들이 열심히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후보들과 20여분 간 환담을 나눈 뒤, 시당 당직자 등을 격려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한편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틀 후인 10일 대전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참석을 위해 다시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 평

소중한 권리행사인 사전투표, 시민의 단결된 역량과 힘을 기대한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일부터 이틀 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앞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투표 당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타지에 있는 유권자가 권리 행사를 위해 근처 사전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이다.

미래통합당은 선거철만 되면 색깔론으로 공포를 부추기더니, 이제는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경제 공포 부추기기를 넘어 저주를 퍼붓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 지친 국민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조장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할 일은 안하고 장외로 나가 반대만 외치더니, 선거에서도 분열과 증오의 언어, 정치공세, 막말만 늘어놓고 있다.

저주의 정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 정치, 막말과 망언으로 국민에게 상처 주는 저질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민의 아픔과 고통에 적극 공감하고 소통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그 이후에 집중했다. 해묵은 정치공세나,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시민에게 차분하면서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포와 불안 조장, 때론 막말과 무차별적 비난으로 판단을 흐리는 등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시민의 단결된 역량과 힘이 필요하다. 사전투표일(4월 10~11일)에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2020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

논 평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뜬금포 방문, 흑색선전과 정치적 모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대전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미래통합당의 선거는 도대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막말 퍼레이드로 온 국민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진중해야 할 총선을 정쟁과 정략으로 뒤엎어 아수라장으로 만들 심산인 듯하다.

미래통합당은 근거 없는 폭정을 심판해 달라고 하면서 대전의 미래와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상대 후보 흠집 내기와 흑색선전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더니 급기야는 지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와 기자간담회와 현장 지원유세까지 벌였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도대체 누구인가.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를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부산·울산·경남 선거대책위원장일 뿐 대전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위치도 아니다. 대전이 울산의 위성도시인가.

어떤 심산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전으로 불러들였는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김 전 울산시장은 대전에 오자마자 우리당 중구 출마자인 황운하 후보에 대한 비방과 모략만 펼쳐놓았다. 그저 황운하 후보를 깎아내릴 목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할 말도 그리 많지 못할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의 선거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두렵기에 지역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까지 불러들여 지역의 민심을 흐리려고 하는가. 정치적 모략으로 점철된 언론플레이와 무엇을 지원하는지 모를 지원유세까지 펼치려 하는지 그 모양새도 참으로 없어 보인다.

대전 시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정치적 모략과 비방전을 위해 연관도 없는 지역의 인

사까지 불러들여야 할 정도로 이은권 후보의 밑천이 그렇게도 없는지 안타깝기까지 하다.

대전 시민의 눈과 귀는 그렇게 흐리고 얹지 않다. 대전과 중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본인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인가. 상대를 어떻게든 깎아내려 반사이익만 보려는 알박한 수에 대해 대전 시민과 중구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단단히 심판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 나라가 힘써야 할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의 뜬금포 방문과 물 흐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민과 함께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권자들은 막말 폭주만으로도 매우 지치고 피곤하다. 미래통합당은 간악한 선동과 후보 개인에 대한 흑색선전 등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힘겨운 대전 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명확한 비전과 정책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

논 평

이완구 전 총리의 근거 없는 저주와 공포 조장,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막말 정국으로 공분을 자초해 온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전 총리 출신까지 합세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협박하기까지 이르렀다.

12일 미래통합당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정국에 묻혀가지만 2~3년 후에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저주와 협박을 퍼부었다. 수년 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해괴한 국정 농단으로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갔던 정권의 수혜자가 이제는 국민을 향해 저주와 협박으로 공포를 조장하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완구 전 총리는 이날 “박근혜 정부 직전까지 GDP대비 국가 부채율은 38%였는데 지금은 국가 부채율이 43%까지 올랐다”며 “2~3년 후에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국가재정을 마치 기업의 수익 체계처럼 비교하며 GDP대비 재정 부채비율을 교묘하게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봐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부채비율까지 들먹이며, 현 정권을 공격하는 수준을 보니 국정 농단 세력의 적자임을 확실히 해두고 싶은 듯 보인다.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 칭찬하는 일본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20%로 전 세계 1위며. 미국 100%, 영국,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120% 정도에 이른다(2018년도 기획재정부 자료 기준). 현재 40%가 넘는 한국 부채 비율이 아주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에 속하는데도 저렇듯 근거도 없는 모략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려 하고 있다.

꺼낼 필요도 없는 이야기지만, 역대 정권을 봐도 재정 적자가 노무현 정부 -10조원, 이명박 정부 -98조원이었다. 현 정부와 비교한 박근혜 정권은 4년을 집권했는데도 -168조원으로 가장 큰 적자재정을 운영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정책으로 520조원의 재정 중 기초연금을 도입으로 매년 11조원을 지출하게 했다. 어디서 재정 적자를 논하며, 현

금 지원을 논하는가. 그리고 국민을 위해 거둔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 일이 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국정을 농단한 정권이지만 한 때 고위 관료였던 이완구 전 총리야 말로 그 간사한 혀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불가피한 재정 지출은 있겠지만,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지책일 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재정 운용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 그렇지도 않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근거 없는 '경제 폭망설'과 저주로 공포를 조장하니 진정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왜곡과 선동 일색의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 지길 당부한다. 부디 총선 승리 여부를 떠나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길 바란다.

2020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

논 평

대전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도심 삼총사, 선택하면 변화합니다

4·15 총선 선거운동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진통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절실하게 하는 선거다.

더욱이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이후 위기극복의 과제를 남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많은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은 확고한 의지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지 않고서는 도약을 꿈꾸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없다. 하지만 이들 원도심은 활력을 불어넣을 변화가 더욱 절실하다.

동구에 장철민, 중구 황운하, 대덕구 박영순 후보 등 원도심 삼총사는 이번 총선에서 혁신도시 유치와 그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낙후된 도심 환경 개선 등 원도심의 운명을 가를 각오를 내세우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금요일(10일) 이해찬·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대전을 찾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등을 약속하면서 힘 있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원도심 지역에 있었다. 그간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는 지역 유권자들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계파나 이념 싸움에나 매달리면서 자

신의 본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결정을 내리는 국회에서
혹여 불법과 폭력, 막말과 해태만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대전 시민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동구 장철민 후보는 중앙당 원내행정과 정책의 실무를 모두 경험한 패기 넘치는 청년 후보
다. 중구 황운하 후보는 그간 공직 생활에서 비취졌듯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을 갖춘 후보다.
대덕구 박영순 후보는 오랜 시간 대덕구에서 성장한 현장 밀착형 인재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
주당 원도심 삼총사 모두는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충만한 시민의 일꾼이다.

위기 극복과 변화 의지를 엿보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진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를 이겨내야만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동안 보여줬던 모습도 선택에 중요한 요건일 것이다. 이 위기에 그저 남 탓과 상대
후보 비방과 네거티브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아니면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진정성
으로 승부하려고 했는지도 판단의 큰 잣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위기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고난이지만 어쩌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와 미래, 그 향
방을 가를 '방향타'는 바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다.

대전의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전 모든 후보들은 '원팀'이라는 각오로
진정성과 국난 극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원도심의 변화와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20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

논 평

막말과 네거티브로 선거 물들이려 하는 미래통합당의 자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의 선거 분위기 흐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정책과 비전이 실종된 네거티브와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의혹 제기로 공정하고 진중해
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유세 도중에 "이 정부는 자기들의
목적은 이루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테러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뱉은 말이다. '아무 말 잔치'도 아니
고, 과연 공당의 대표가 내뱉은 말인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발언이다. 본인이야
말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민
의 눈과 귀가 정령 두렵지 않은가.

미래통합당을 지원하기 위해 12일 대전에 온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2~3년 후에는 문 대통
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무서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근거 없는 적반하장식 대한민국 경제
저주와 국민 협박만 퍼붓고 갔다.

이어 13일 대전을 두 번째 찾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기대(?)를 저버리
지 않았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한 채 정부비판과 경제 무능론
등 대안 없는 네거티브만 늘어놓고 대전 시민에게 표를 달라고 떼를 썼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대전지역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미래통합당 대전 서구의 한 후보 측은 우리 당 후보를 향해 거짓된 사실을 여기저기 퍼뜨리
다가 선관위에 털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지역에 불법으로 명함이 살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부적절한 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 중구 이은권 후보도 지역에 대한 정책 제시는 차치해버리고 우리 당 황운하 후보를 모략하기 위해 멀리 울산에서 지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사까지 불러들여 일방적이고 허황된 주장만 늘어놓고 떠났다.

미래통합당의 막무가내식 네거티브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기간 내내 특정 인사의 입과 시당 성명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끊임없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출처가 불분명한 특정 단체는 우리 당 후보를 음해하고 마타도어 하려는 정치 공작의 정황까지 포착된 실정이다.

미래통합당의 분위기 흐리기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점차 심화되고 있다. 마치 누가 더 막말과 네거티브를 잘하나 치열한 경연이라도 펼쳐는 듯하다.

상대 후보와의 공정한 정책과 인물 경쟁에는 애초 자신이 없으니, 음해와 네거티브만이 살 길이라고 여기는 듯 보인다. ‘미래통합당’에는 정작 ‘미래’가 없고, 오직 내세울 것이 ‘증오 프레임’과 ‘네거티브’뿐인지 묻고 싶다.

여러모로 참 어려운 시기다. 코로나19 고통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제시해야 할 이때 오직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심판할까 두렵지 않은가.

막말과 막무가내식 네거티브 전략은 그 자신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제발 당명답게라도 정책과 비전, 대한민국과 대전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과 시민에게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선거는 인기투표나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하고 성스러운 국민의 심판임을 미래통합당은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

보 도 자 료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단 “시민들의 결집되고 깨어있는 힘 투표로 보여달라”

선거운동 마지막날 ‘대전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통해 국난극복 위한 지지 호소
“코로나19 극복 후 이제 경제를 고민해야 할 때…일하는 국회 만들어 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은 14일 “시민들의 결집되고 깨어있는 힘을 투표로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병석(서구갑)·이상민(유성구을)·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영순(대덕구)·김용복(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등 공동선대위원장단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대전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구태 정치와의 이별,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호소했다.

공동선대위원장단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 대전 후보들은 대한민국과 대전시민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코로나19 이후의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시민 여러분께 호소했다”며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 함께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일 이해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전 방문 당시 발언을 언급하면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의료·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 대전의료원 건립 등 대전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줬다”며 “정부여당만이 코로나19의 빠른 극복과 대전의 미래지도를 바꿀 힘과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과 관련해서는 “대전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래 구상을 보여주는커녕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무차별적 후보 흠집 내기와 막말에만 혈안이 돼 진흙탕 선거 분위기 만들

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어떻게 일할 것이고, 어떠한 비전을 펼쳐 나갈지는 도 대체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무리 상대 당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네거티브 준동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대전 시민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향해 묵묵히 걷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선대위원장단은 코로나19 국난극복에 대해서도 “이제는 경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꼬집으면서 “급하고 명확한 지원과 함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락가락하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 동원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선거로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개혁을 완수할지, 아니면 국정과제 완수를 야당에 발목을 잡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짚으면서 “기득권과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만 탐하며 흑세무민하는 정치세력을 단호히 심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동선대위원장단은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잡는 기표 도장의 크기는 지름 0.7 cm에 길이 12 cm의 작은 크기지만 이를 움직이는 마음과 손은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만큼 크고 무거운 선택일 것”이라며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구태 정치와의 이별,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대전시민의 현명하고도 준엄한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밝히며 호소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선거운동 마지막말이자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 총선 후보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차분하고도 간절한 목소리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표심을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2020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논 평

깨어 있는 시민의 승리, 더욱 겸손하게,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연 시민의 현명하고, 준엄한 선택이었다.

대전시민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을 믿고, 대전 전석 석권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셨다.

대전지역 지역구 총선 결과를 보면, 기존 4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전체 7석으로 대전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만과 환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매서운 지적과 요구를 함께 보내주신 것이기에 당선인을 포함한 시당 구성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에 주신 대전 시민 한 분 한 분의 결정은 준엄했다. 일하는 국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만들라는 민심의 명령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모든 구성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코로나19 위기의 성공적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알기에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과 함께 이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

더 나은 미래와 대전의 새로운 도약,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대전 시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다시 한번 대전시민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드리며, 더욱 나은 대전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2020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

보 도 자 료

민주당 대전 당선인들, “코로나19 위기 극복 매진하겠다”

박병석·박범계·이상민·조승래·장철민·황운하·박영순 및 재보선 당선인 현충원 참배
“위기 극복에 하나되겠다”...세월호 6주기 맞아 세월호 교사 묘역도 참배

더불어민주당 대전 제21대 국회의원과 4·15 재보선 당선인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4·15 총선을 통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서구갑)·이상민(유성구을)·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장철민(동구)·황운하(중구)·박영순(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수빈(서구6) 광역의원, 김동성(서구나)·신혜영(서구바)·송재만(유성구다) 기초의원 당선인 및 당직자 등은 16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합동 참배를 진행했다.

당선인들은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묵념을 진행하고 뒤이어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세월호 교사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했다.

참배를 마치고 6선 당선에 성공한 박병석 당선인은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 품격 있는 국회를 위해 헌신 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새겼다.

박병석 당선인은 이번 4·15 총선 결과와 관련해 “코로나19에 위기 극복과 대전과 충청권의 발전에 집권여당의 그동안 노력을 인정하고 앞으로 노력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의 지정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시도지사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올 하반기로 예정된 많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대전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전발전 전략에 대해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당선인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상

태를 잘 극복해 달라는 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 위기 극복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있어 대전시를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한편 당선인들은 이날 코로나19와 세월호 6주기 등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분향 후 기념 촬영 등은 생략했다.

2020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논 평

미래통합당의 터무니없는 총선 불복 움직임,
시민의 눈이 두렵지 않은가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이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선거 이후 미래통합당 대전 총선 당시 후보들의 첫 일성은 이른바 ‘총선 실태 조사단’ 꾸리기다.

내용을 보면 우리 당 중구 황운하 당선인을 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 지역구인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재검표에 대비해 법원에 투표지 증거 보존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등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읽힌다.

우선 중구 황운하 당선인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경찰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선관위의 판단을 받았다. 이미 총선 출마에 문제없다고 결론 난 문제를 다시 문제 삼겠다는 이야기다.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에 대한 재검표 시도도 전형적인 총선 불복 움직임이다. 존재도 하지 않는 ‘관권선거’를 운운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결과를 인정하기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싫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총선 직후 “민심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변화와 쇄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민심과 변화와 쇄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결국 ‘총선 불복’ 움직임을 말했던 것인가. 아직도 시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시민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못 먹는 감 찢어나 보자’ 식의 막무가내 분탕질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미래통합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 실태 조사단’이 아니다. 본인들에게 사법기관의 일을 대신에 해 달라는 요구를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다, 터무니없는 착각이 만들어 낸 산물에 불과함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아직 20대 국회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해야 할 일도 많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과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이 같은 움직임은 시민의 정서와 민심의 목소리를 역행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거대한 분노를 다시 한번 겪어야 할 것이다. 그저 입으로만 쇄신과 변화를 외칠 것이 아니다. 본인들이 밝혔듯, 뼈를 깎는 쇄신과 변화로 국민과 시민의 사랑을 되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준엄한 민심에 대한 착각과 허황된 야욕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부디 인정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2020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



II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백서

제21대 총선 관련 활동

01. 대전시당 추진 활동사항
02. 대전시당 제21대 총선 정책
03. 논평·보도자료·브리핑
- ▶ 04. 선거구별 활동사항

04. 선거구별 활동사항



목표

- 제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조직구성과 선거 활동
 - 정직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구성원 조직
 - 더불어민주당과 후보자 홍보를 위한 구성원의 적극적인 활동
 - 동구지역 선거 기반을 위한 선거 조직의 역량 향상 및 결집

조직구성

- 동구 선거구 선대위 조직 구성
 - 구성원 명단

분과	직위	성명	분과	직위	성명
선거대책 위원회	(공동)명예선거대책 위원장	김병욱	선거대책 본부	(공동)선대위원	황종성
	장철민후원회 회장	한송동			성용순
	총괄선대본부장	김병국			박민자
	고문	김정태	대외협력 위원회	대외협력특보	강화평
		이강호			김종욱
		강찬구			강병문
		고영완			김재광
		김영근			김진희
		김정귀			김혜성
		김제홍			남기호
		장충식			류호석
선거대책 본부	(공동)선거대책 본부장	남진근			민성식
		이나영			박옥범
		김태수			안장인
		이승복			이용태
	(공동)선대위원	윤기식			임관상
		이종호			황만하
		윤종명		도시재생(재개발)정책특보	우상봉

분과	직위	성명
대외협력 위원회	문화예술특보	최석권
	장애인총괄본부장	최정규
	전통시장활성화 특보	박황순
	정무특별보좌관	이혁제
	정책자문단장	송인창
여성위원회	조직특보	김윤기
	여성위원장	신은옥
	여성위원회 사무국장	김정희
	여성특보	박경분
	여성특보	배나래
	여성특보	백승자

분과	직위	성명
여성위원회	여성특보	신정순
	여성특보	육현수
	여성특보	이규숙
청년본부	청년총괄위원장	최대성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한병찬
	청년위원회 감사	김진형
	청년위원회 성분과위원장	이정희
	청년위원회 조직국장	이재규
	청년위원회 지역장	김현준
	청년위원회 지역장	허재영

활동내용

- 주요 선거운동
 - 일시 / 장소 : ~4. 14. (화) / 동구 전역
 - 내용 : 장철민의 겸손하고 정직한 유세 활동



장철민 예비후보가 12월 27일 중앙시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철민 예비후보가 12월 27일 동구이야기 토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철민 예비후보가 12월 30일 대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장철민 예비후보가 12월 30일 동구청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장철민 예비후보가 1월 19일 동구지역 일대를 투어하고 있다.



장철민 예비후보가 1월 22일 동구지역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월 18일 장철민 후보가 지역주민을 위한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3월 21일 장철민 후보가 대동 하늘공원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



2월 6일 학생들에게 졸업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우송중고등학교에 방문한 장철민 후보



장철민 후보가 2월 9일 중앙시장 앞에서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3월 23일 장철민 후보가 마켓챌린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문구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3월 23일 장철민 후보가 중구, 대덕구 원의 후보자들과 대전천에서 '대전선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월 12일 조기 축구회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장철민 후보



2월 24일 장철민 후보가 축구회 안전지원제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철민 후보 부부가 3월 24일 가오동 은어송네거리에서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장철민 후보가 3월 26일 동구 어린이집연합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3월 12일 자양동 일대를 소독하고 있는 장철민 후보의 모습



3월 13일 장철민 후보가 동구청년위원회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철민 후보가 3월 28일 신도시장 방문 인사를 하고 있다.



장철민 후보가 3월 28일 이낙연의 봄 편지 방송에 참여하고 있다.



장철민 후보가 3월 28일 대전역 앞에서 동구청년위원회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철민 후보가 3월 28일 대전역 계단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4월 2일 동구 일대에서 선거운동 중인 장철민 후보



장철민 후보가 4월 2일 동구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3월 30일 장철민 후보가 대전역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시당 공동선대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장철민 후보가 '일 잘하는 1등 정당, 대전은 하나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철민 후보가 4월 3일 캠프 사무실에서 청소년 단체 관계자와 정책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4월 3일 복합터미널 인근에서 대형풍선인형을 활용해 선거운동 중, 장철민 후보가 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4월 3일, 동구 시장에서 대형인형풍선과 함께 이색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장철민 후보



4월 7일 대전역 동광장에서 공약 발표 중인 장철민 후보의 모습



장철민 후보가 4월 7일 산내복지만두레 감자씨 파농 행사에 참여해 감자캐기 작업을 돕고 있다.



장철민 후보가 4월 9일 캠프 사무실에 방문한 지지자들과 면담을 나누는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철민 후보가 4월 9일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캠프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장철민 후보가 4월 9일 미술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 주요공약

1. 대전 혁신도시 동구 유치(공공기관 20개 유치로 일자리 1만개 창출)

- 2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해 일자리 1만개 창출
-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가족 이주율 70% 완수
- 공공기관 지역화폐 의무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과학기술 공공기관 및 철도 관련 공공기관 유치

2. 대전의료원 건립

- 용운동에 대전의료원 조기 건립
- 정부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병원 기능을 합쳐 타당성 높임

3. 대전선 숲길 공원 조성

- 대전선 폐선하고 철길공원 조성하여 지역발전 도모

4. 미래형 명품 주거도시 완성

- 원주민이 계속 살 수 있는 명품 주거지로 도시재생
 - 신흥3구역, 천동3구역, 대동2지구, 삼성1구역, 구성2지구, 소제지구, 가오동
- 천동중학교 신설 및 가양동 제2시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창의도서관 조기착공 으로 동구 교육환경 개선
- 셉테드 범죄환경 안전설계를 도입해 가로등과 CCTV 등을 확충
- 첨단과학을 접목한 재난안전체험시설 신설
- 대중교통 및 도로 인프라 혁신
 - 대전 2호선 트램 조기완공
 - 판암역 4번 출구, 신흥역 2번 출구, 대동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신설
 - 용운 용방마을~판암 대운초교, 산내 오투그란데아파트 옆 대체교량, 대청호 봉어섬 역륙교 도로개설
 - 용운동 하나은행~용운복지관, 대주파크빌~우암사적공원,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진입도로, 청소년 자연수련원, 먹티골 등 도로확장
- 산내동에 종합체육단지 신설, 신상동 미군 저유시설 공간 축구장 조성
- 제3노인복지관 건립(인동 212-28)
-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6·25전쟁 기념식·해외파병 기념식 개최

5. 대전 경제혁신의 중심 동구

- <전통시장 복합화 특별법>을 만들어 중앙시장을 공공지원 리모델링
- 청년 희망주택, 창업오피스 입주, 전세계 예술가들에게 작업실과 전시공간 제공
- 역세권 종합 개발
 - 코레일 자회사 및 관련 공공기관 유치해 철도혁신도시 조성
 - 대전역, 철도박물관, 소제동 관사촌, 대동천을 묶어 철도문화역사특별구역 조성
- 레트로 여행 1번지로 만들어 관광사업을 활성화
 - 친환경 전기버스로 동구 시티투어, 소제동·대청호 등 연결
 - 지역상권 이용시 시티투어 무료 이용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
 - 대청호반 명품조망대길·대동 하늘공원·식장산 생태문화 탐방 숲 조성
 - 대동천을 생태문화의 축으로 정비하고 배수기능 강화

- 과학기술 및 로봇산업 교육 중추
 - 대전의 로봇기술을 전세계에서 배울수 있는 로봇기술교육센터 신설
 - 혁신도시 지정받아 과학기술 진흥·교육 공공기관 유치
- 용전동 대전터미널 인근을 청년 상권으로 개발
 - 가로정비사업·청년창업지원

■ 평가 및 제언

• 평가

- 동구지역 전역에서 매일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길거리 인사를 전개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민심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일조
- 최근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된'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활동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실천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전환시키는데 일조
- 철저하게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지키며 지역 거리인사, 시장방문, 경로당 방문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과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호감을 얻음. 특히 선거 운동 시 선거조직의 진정성과 노력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우호적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

• 제언

- 지역 내 협회, 협의회, 기관, 단체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과 정책 건의 및 간담회를 가짐으로서 이해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음
-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한 청년위원회와 같이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인위원회 등의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역 활동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목표

• 목표

- 총선 승리를 위한 분과별 선대위 조직 구성 및 중구 부흥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문 자문단 영입

■ 조직구성

• 중구 선거구 선대위 조직 구성

- 구성원 명단

분과	직위	성명	분과	직위	성명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종기	선거대책본부	정책자문단	김수현
		김선건		법률자문단	문성식
선거대책본부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박종호	분과위원회	선거사무장	김진태
		이완규		선거사무국장	홍승경
		유하용		회계책임자	김광수
		권중순		조직총괄국장	정종훈
		조성철		대변인	김경훈
		홍종원		상황실장	전병용
		윤진근		정책기획실장	박승규
		황경식		SNS서포터즈단장	고제열
		김경훈		SNS팀장	이종서
		육상래		중구장애인복지정책자문위원장	김현준
	(공동)선거대책본부 부분부장	정옥진		도시재생정책자문위원장	임성환
		윤원옥		도시재생정책자문위원	김정옥
		안선영		정무특보	장진섭
		강철승		청년위원장	오은규
		김병규		다문화특별위원장	전남표
		이운우		교육특별위원장	강호계
		문제광		의료특별위원장	명정호
		하재봉			
		류수열			
		김귀태			
		홍순국			
		이준석			
		이규일			

분과	직위	성명	분과	직위	성명
분과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오재진	분과위원회	특보	최재균
	대외협력위원장	심재룡		특보	임채규
	디지털소통위원장	이학룡		특보	임주혁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상미옥		여성특보	전영자
	사회복지정책위원장	송태순		여성특보	박미선
	장애인위원장	두오균		여성특보	윤경희
	대학생위원장	황기연		여성특보	안정희
	미래세대본부장	오원택		여성특보	김미경
	보건의료정책자문위원	이장춘		여성특보	장수정
	자문위원	김현석		여성특보	윤경희
	특보단 단장	곽인환		여성특보	박현
	법률특보	정민도		여성특보	장수정
	중구체육정책특보	이상인		여성특보	김혜숙
	특보	박희승		여성특보	문미혜
	특보	박영문		여성특보	김미경
	특보	김세환		여성특보	임향순
	특보	장극동		여성특보	이지안
	특보	오해윤		주민자치특보	최영희
	특보	김중돈		사회복지특보	이진우
	특보	김상현		사회복지특보	송진실
	특보	최영희		사회복지특보	나호근
	특보	송덕현		사회복지특보	김은홍
	특보	권선덕		사회복지특보	홍성열
	특보	유승민		정책특보	나진희
	특보	배성무		정책특보	남승욱
	특보	강춘희		정책특보	허정미
	특보	김태호		정책특보	이미연
	특보	황인국		정책특보	양태록
	특보	전재홍		정책특보	조미정
	특보	김상걸		청년특보	김영래
	특보	장재원		환경특보	정상균
	특보	한은식		환경특보	박소영
	특보	신동섭		환경특보	홍정자
	특보	이만섭		자원봉사특보	길민정
	특보	이종구		선대위일자리특보	전윤선
	특보	신상철		원도심 문화·예술특보	이인복

■ 활동내용

• 대전천 지역 장철민 후보와 합동 자전거 유세

- 일시 / 장소 : 2020. 3. 16. (월)

- 내용 : '대전천을 타슈'라는 이름으로 장철민 후보와 타슈 자전거를 타고 합동 자전거 유세 진행



3월 16일 대전천에서 장철민 후보와 함께 합동 자전거 유세를 펼치는 황운하 후보

•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식

- 일시 / 장소 : 2020. 3. 19. (목)

- 내용 :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조직구성 임명식



황운하 후보가 3월 19일 캠프 사무실에서 선거캠프 선대위 조직구성 임명식을 하고 있다.

•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 일시 / 장소 : 2020. 3. 20. (금)

- 내용 : 후보 추천서(공천장)를 받은 다음날에 이루어진 첫 공식행사로 선거캠프 조직원들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참배 진행



황운하 후보가 3월 2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황운하 후보가 3월 2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석교동 제일아파트 지역 인사

- 일시 / 장소 : 2020. 4. 4. (토)

- 내용 : 석교동 지역의 노후된 제일아파트 거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설 노후 등 지역 문제점과 고충 수렴



4월 4일 석교동 노후아파트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주민과 이야기 중인 황운하 후보



같은 날, 석교동 일대 거리인사 중 황운하 후보가 한 시민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 산성동 지역 인사

- 일시 / 장소 : 2020. 4. 4. (토)

- 내용 : 산성동 지역 주민 대면 인사 및 명함 배포



황운하 후보가 4월 4일 산성동 일대에서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 자전거 유세단

- 일시 / 장소 : 2020. 4. 4. (토)
- 내용 : 대전 중구 일대 자전거 라이딩 유세 인사



황운하 후보 거리운동원들이 4월 4일 산성동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 용두동 서대전네거리 지역 조승래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지원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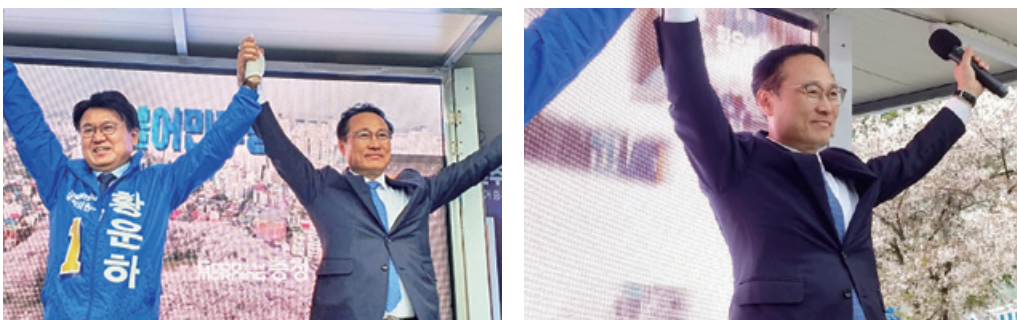
- 일시 / 장소 : 2020. 4. 12. (일)
- 내용 : 서대전네거리 조승래 의원 지원유세



조승래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 4월 12일 서대전네거리 일대에서 황운하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대사동 보문산입구 지역 홍영표 원내대표 지원유세

- 일시 / 장소 : 2020. 4. 12. (일)
- 내용 : 대사동 보문산입구 지역 홍영표 원내대표 지원유세



홍영표 원내대표가 4월 12일 보문산 입구에서 황운하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용두동 서대전네거리 지역 박범계 의원 지원유세

- 일시 / 장소 : 2020. 4. 12. (일)
- 내용 : 용두동 서대전네거리 지역 박범계 의원 지원유세



박범계 의원이 4월 12일 서대전네거리 부근에서 황운하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용두동 서대전네거리 지역 선거사무원 총동원 유세

- 일시 / 장소 : 2020. 4. 14. (월)
- 내용 : 용두동 서대전네거리 지역 박범계 의원 지원유세



선거 전날인 4월 14일, 황운하 후보 선거사무원들이 총동원되어 마지막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 주요 공약

- 서남부터미널을 문화터미널파크로
- 중촌동 근린공원내 새숨타운 조성
- 중앙로 복합 창업특구 조성
- 5G 인프라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 디지털 성범죄 전문연구소 유치
- 중부소방서 신설 / 중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 노후 중구청사 및 주민센터 신축
- 태평동 고교 신설
- 원도심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
- 중촌동 옛 대전형무소 일대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 어르신 전용 실버극장 실버음악다방 운영

■ 평가 및 제언

• 평가 및 제언

- 노인 분포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오프라인 대면 선거운동이 득표율에 직결. 차기년도 선거 시, 행정동별 2020 총선 득표율을 분석해 지역별로 득표율이 미비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보완 대책을 세우고, 연령별 행정동 인구 분포를 대입한 지역 위원회 조직구성이 필요
- 구민 분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 구석구석을 다니며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의견을 듣고 고민. 선거운동 기간동안 만났던 많은 구민분들의 간절함을 깊이 헤아려 득표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중구의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선거운동에 임함.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상기 마음자세로 구민의 여망과 희망에 부응하려는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 사료



- **목표**
 - 5선을 통해 다져온 한결같은 자세로 주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얻음
 - 완벽한 조직구성과 임무 부여로 제21대 총선에서 완승
 - 충청권 최초로 낙선 없는 6선 달성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

■ 조직구성 / 서구갑 선거구 선대위 조직 구성

분과	직위	성명	분과	직위	성명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기복	조직본부	본부장	예석해
		이광복	SNS본부	본부장	최지연
		박혜련	유세지원본부	본부장	이복섭
선거대책본부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예석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심규익
		최 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준석
		전명자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공동)선거대책본부 부분부장	오낙연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김영미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태은
		조규식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이형국
		강정수	청년위원회	위원장	최민구
운영본부	본부장	이용수	기독교위원회	위원장	이건우

■ 활동내용

가. 거리 집중인사

- 시간 : 아침 (오전 7시 30분) / 저녁 (오후 5시 30분)
- 장소 : 안골네거리, 관저동 수요장터 목요장터, 유등천, 건양대네거리 등
- 내용 : 어깨띠 착용, 명함배부 및 인사



박병석 후보가 4월 6일 안골네거리에서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박병석 후보가 4월 8일 관저동 수요장터에서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박병석 후보가 4월 8일 유등천 일대에서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박병석 후보가 4월 10일 건양대 네거리에서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나. 유관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 일시 : 선거기간 내 수시(의견청취 및 정책수렴 등)
- 장소 : 서구갑 지역위원회 사무실 / 필요 시 현장방문 실시
- 내용 : 어린이집, 체육회, 미용사회, 노점상연합회 등 각종 직능단체



4월 3일 서구갑 지역위 사무실에서 박병석 후보 지지자들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박병석 후보가 4월 7일 서구갑 지역위 사무실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각 4월 9일과 12일, 박병석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서구갑 캠프 사무실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다. 충청권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

- 기간 : 2020. 4. 2. ~ 2020. 4. 14. (해당 지역 일정 감안 실시)
- 장소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28개 선거구
- 내용 : 현지방문 지원유세 및 후보자 격려, 선거방법 지도



박병석 후보가 4월 11일 계룡 일대에서 김종민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박병석 후보 등 현역 의원들이 4월 13일 박영순(대덕구)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라. 현수막 게첩 및 유세차 운영

- 기간 : 2020. 4. 2. ~ 2020. 4. 14.
- 장소 : 12개 동 주요사거리 24매
- 내용 : 국회도서관 대전분관 건립 추진, 트램 2호선 지선 노선 신설 추진 등



4월 2일 옥녀봉삼거리



4월 2일 변동네거리



4월 2일 배재대학교 앞



박병석 후보가 4월 10일 복수동 일대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마.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

- 기간 : 2020. 4. 2. ~ 2020. 4. 14.
- 장소 : 12개 동 주요사거리(안골네거리, 건양대네거리, 도마네거리 등)
- 내용 : 2인 1조, 4인 1조 등 피켓 및 복장 착용 후 주요사거리에서 선거운동



선거운동원들이 4월 2일 도마 네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이 4월 3일 건양대 네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4월 7일과 14일, 각각 가수원동과 관저동 일대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유세하는 모습



바. 기타활동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 : 마스크 제작 봉사자 격려(5회 관저, 괴정 등)
-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방역활동(3회 한민시장, 도마시장 등)



박병석 후보가 2월 21일 서구 전통시장 격려 방문 및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박병석 후보가 2월 21일 시장 방역, 3월 15일 관저동의 한 공방에서 마스크 제작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활동

- 수시로 TV, 라디오방송 출연하여 공동선대위원장 및 후보자로서 토론 인터뷰 실시
- 기타 언론등을 통한 배너광고 등

언론매체	일자	내용
TJB 대전방송 (TJB 대전 8뉴스)	3. 20	총선 전략 인터뷰 및 방송
CBS 대전 (CBS 매거진)	3. 23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굿모닝 충청 (굿모닝 충청)	3. 23	총선 전략 인터뷰 및 보도
KBS 대전 (KBS 대전 9뉴스)	3. 25	총선 전략 인터뷰
TJB 대전방송 (TJB 열린토론)	3. 27	열린토론 방송 녹화
CMB 대전	3. 28	연설 녹화
TBN 한국교통방송 대전	3. 30	연설 녹음
KBS 대전	4. 1	10분 연설 녹화

언론매체	일자	내용
CMB 대전 (CMB 대전 뉴스)	4. 2	의원님 거리 인사 인터뷰
KBS 대전 (서구갑 후보자 토론방송)	4. 6	서구갑 후보자 토론방송
KBS 대전 (KBS 대전 대세남 라디오)	4. 6	라디오 인터뷰
TJB 대전방송	4. 7	5분 연설 녹화
KBS 대전	4. 12	연설 라디오 녹음
TBN 한국교통방송 대전 (출발 대전대행진)	4. 13	라디오 생방송
KBS 대전 (KBS 1 대전)	4. 13	KBS 1 대전 라디오 인터뷰

후보자 주요 공약

구 분	공 약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겠음	•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 • 트램 노선 확정 지선 신설 추진
서구가 대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음	• 도시철도 3호선 기능 광역철도 1단계 구간 노선 역세권 개발과 병행 추진 • 도안동로 교통난 해소 • 대전권 연계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 서대전 ~ 진주 간 철도 건설 추진
삶의 질 향상	•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 서구갑 전역의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 • 도마1·2동 도시재생 사업과 더불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확대 추진 • 유등천 생태복원 사업 • 미세먼지 집진 시설 확충 반려동물 공원 조성
문화가 숨 쉬는 서구 조성	• 국회도서관 대전 분관 추진 • 원도심 문예회관 건립 추진 • 가장동 주민센터 신축을 통한 도서관 맘카페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 도안 호수공원 정상 추진 •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아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 도안 지역 고등학교 신설 추진 • 서구갑 통학로 전역 스마트 속도저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 백운초 강당·교실 신축 • 신계중 강당 신축 • 서대전여고 도서관 건립 추진

평가 및 제언

• 평가 및 제언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실시된 제21대 총선은 예년 선거와 크게 다르게 진행되었다. 유권자와 접촉, 선거운동의 방법에 있어 비대면 접촉의 의한 선거운동으로 이루어짐
- 대전과 서구 전체의 인구가 과거에 비해 감소된 반면에 서구갑 지역은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인구가 매년 증가된 가운데 선거가 치루어짐
- 12개의 사전투표소와 59개소의 본투표소를 통해서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투표소마다 코로나방지를 위해 체온계, 손 소독제, 비닐장갑 등이 비치되어 예방수칙을 통하여 안심투표가 진행됨
- 개표결과 74,978표를 획득함으로써 득표율 55.58%(16대 - 37.50%, 17대 - 51.80%, 18대 - 41.29%, 19대 - 54.53%, 20대 - 48.66%)최고 최다 득표율로 당선됨
- 5선 이상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 유일한 공천을 받은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년간 한결같이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 주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얻어 충청권 최초 낙선 없는 6선의 고지에 오름
- 28석이 걸린 충청권에서 박병석 의원은 충청권 선대위원장을 맡아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 총선 전반을 진두지휘하여 대전7석, 세종2석, 충남6석, 충북5석 등 총 20석을 확보하여 압승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함
- 다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촉방식 위주의 선거활동으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함에 있어 제약
- 민주당의 불모지인 대전 서구갑에서 6선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은 지난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의 기인



목표

- 코로나19의 완전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및 국정안정을 위해 집권여당의 총선 승리
-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으로 대전의 랜드마크 건설
- 혁신과 공정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대전·세종·충청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로 뻗어가는 벤처창업단지로 조성 : '충청판 실리콘밸리'로 성장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 제21대 국회, 공정을 기반으로 한 혁신의 정치실현

조직구성

• 서구를 선거구 선대위 조직 구성

- 구성원 명단: <더불어 박범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분과	직위	성명	분과	직위	성명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갑중	고문위원장		이경호
		박세용			이규자
		김종천			이대치
		윤용대			이병열
		김창관	선대위원장		이조영
	특보단장	양동철			이종민
	대변인	주정봉			이철남
	고문위원장	강석용			조재주
		류동수			최병수
		박보현			허광범
		임평빈			강정완
		정성균			강준수
		고만수			박동우
		권승금			박정기
		권오중			백승호
		김석중			이미현
		박상주			강사영
		배영철			강진산
		심상녀			강태근

분과	직위	성명	분과	직위	성명
선거대책 위원회	선대위원장	고록안	선거대책 위원회	정책자문단장	고병오
		고영희			탁평곤
		나문규			권상선
		김영모			김소영
		김용진			이수복
		김진원			김인동
		류마영			남성집
		박병식			조인성
		박철훈			이규봉
		심규익			송달섭
		심의양			최민구
		안의종			서기자
		안창인			권선희
		양희방			남수중
		오연평			이태희
		오주원			최종인
		우승호			이영대
		원호순			이승현
		윤필상			김성수
		이병상			김영두
		임종섭			맹수석
		전원식			정세은
		정상화			정주영
		정형호			곽대훈
		이홍렬			황인태
		곽영교			김성현
		김경훈			박종수
		이용부		법률자문단장	이은율
		송재민			배철욱
		홍준기			곽예주
		오봉길			박주연
		이인하			박천사
		채계순			신가영
		우승호			유병진
		정능호			유은상
		이선용			이연숙
		손도선			정민희
		김신웅			김지혜
		서다운			

※ 이외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331명, 선거대책위원회 부분부장 652명을 포함 총 1,097명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 활동내용

• 주요 선거운동

- 일시 / 장소 : 4. 2. (목) 자정 자연마당
- 4. 4. (토) 오후 4시 둔산대공원
- 4. 4. (토) 오후 12시 30분 보라매공원
- 4. 10. (금) 오후 5시 40분 큰마을네거리

- 내용 :

2020. 4. 2. <D-13 자정, 공식선거운동 개시>

자연마당에서 ‘더불어’ 관계자들과 함께 4월 2일 ‘0시’,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결의를 다짐



박범계 후보가 4월 2일 자정, 자연마당에서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하고 있다.

4. 4. <대전센트럴파크 랜드마크 ‘아트 브릿지’ 공약관련 연설 및 브리핑>

대전센트럴파크 공약의 상징적 장소 둔산동 보라매공원에서 관련 공약발표를 진행



박범계 후보가 4월 4일 센트럴파크 랜드마크 '아트 브릿지' 공약관련 연설 및 브리핑을 하고 있다.

4. 4. <둔산대공원 자전거 유세>

코로나19 위기 속 차별한 선거 콘셉트로 공식 선거운동기간 초반 '코로나19 친환경 자전거 유세'를 펼쳐 유권자들과 밀착형으로 호흡함



4월 4일 둔산대공원에서 자전거 유세 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박범계 후보

2020. 4. 10. <큰마을네거리 집중유세 및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코로나19 예방 캠페인과 함께 거리두기 집중유세를 진행



박범계 후보가 4월 10일 큰마을네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 후보자 주요 공약

-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계속사업) - 랜드마크 건설(100~200억 규모)
-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 대전 스타트업 파크 구축 및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
- 둔산동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설치(현재 T/F운영)
- 둔산2동 샘머리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 둔산3동 공방예술거리 조성
- 둔산3동, 월평2·3동 가람4거리 조명등 환경개선사업
- 월평동 마사회건물 활용방안 마련(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이전 등)
- 월평1동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 월평2동 통계교육원 공영주차장 확충, 선사유적지 문화제 확대
- 월평2·3동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보행길 사업
- 만년동 둔산대공원 개방 및 접근성 강화, 만년동 음식문화거리 조성, '대전 콘텐츠산업 육성센터' 구축 (100억 원 규모)
- 갈마1동 스포츠문화센터/보훈회관 신축, 갈마문화공원 시설현대화

- 갈마2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완공)
- 용문동 도로환경 정비사업(자전거도로, 보행로 환경개선 등)
- 탄방동 남산체육관 리모델링 및 남산공원 힐링 숲 조성, 탄방로 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행복복지센터 신축

■ 평가 및 제언

• 주요 성과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박범계 당선인의 득표율은 57.5%로 대전 7인의 당선인 중 최대 득표율을 보임
- 서구을 11개동에서 전부 승리 및 득표율 증가
- 코로나19 위기와 침체된 분위기 속 기존의 화려한 선거운동이 아닌 국민을 위로하는 차분한 선거운동(로고송·울동 조용하고 정적인 컨셉, 자전거유세단 등)을 진행하여 선거운동 중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음
-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 선거사무소 방역과 방문자 모니터링, 선거운동 시 거리두기 유지 등 철저한 관리 속에 캠프 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음

• 교훈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 국민들은 어렵게 투표장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고, 과반 이상의 의석수라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전력을 다할 것
-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함

• 미흡/개선사항

- 캠프 내 개표상황판 보완 필요
- 선거사무소 주차 공간 협소



■ 목표

• 선거목표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극복과 국정안정, 패스트트랙과 야당의 보이콧 등에 대한 정치개혁,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21대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선거라 할 수 있음
- 유성구갑 선거구에서의 당선을 통해 제20대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완수, 당 조직의 결집력을 더욱 견고히 하여 정부와 지방 정권 재창출을 통해 산적한 지역 현안 과제 해결

• 선거 기조

- 유성구 갑의 선거운동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용한 선거, 위기극복 캠페인 방식으로 선거운동 전개, 면담이나 간담회는 비대면이 가능한 내용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 대규모 유세 또는 선대위 구성을 하지 않았음

■ 조직구성

• 당원조직

- 조용한 선거 기조로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를 기반으로 권리당원 중심의 선거대책본부 조직 구성

분과	직위	성명	주요 경력
선거대책본부	선거대책본부장	엄승철	전 민주당 대전부지부장
	노인본부장	신운용	유성구갑 지역위원회 고문
	노동본부장	김영수	유성구갑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직능본부장	박관수	유성구갑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여성본부장	김정숙	유성구갑 지역위원회 고문
	민생본부장	오유균	전 유성신흥 이사장
	조직본부장	최정춘	유성구갑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청년본부장	유성하	유성구갑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대학생본부장	황인경	유성구갑 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

• 지역구 총괄 책임자

- 유성구 갑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각 지역구 조직 및 정책 (지역 공약) 총괄

분과	직위	성명
진잠동·원신흥동 (1선거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민태권
	유성구의회 의원	김관형
운천1동·운천2동·노은1동 (2선거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오광영
	유성구의회 의원	황은주
	유성구의회 의원	최옥술
	유성구의회 의원	인미동

• 직능조직

- 지역위원회 조직 내에서 특정 직능과 연관 있는 당원의 지역주민 (비당원) 규합
- SNS (카카오톡 등) 를 통한 후보자 홍보조직 채널을 별도로 운영
- 비대면 온라인 채팅 간담회를 통해 정책, 이슈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의견 수렴

■ 활동내용

• 주요 선거운동



4월 1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용복 의장과 조승래 대전
시당위원장이 함께 정책협약식에 서명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조승래 후보가 4월 2일 구암동에서 거리인사 중,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4월 3일 조승래 후보가 원내동에서
출근길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



4월 3일 유성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조승래 후보



조승래 후보가 4월 4일, 유성천 및 반석천 자전거 유세 도중
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승래 후보가 4월 5일 수통골 계룡산국립공원 입구
등산로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4월 6일 캠프 사무실에서 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정책간담회를
진행 중인 조승래 후보



4월 7일 장대동 거리 인사 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조승래 후보



조승래 후보가 4월 8일 구암동 경로당 인사 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4월 8일 야간 도보 거리 인사 중 주민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조승래 후보



4월 10일 조승래 후보가 노은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승래 후보가 4월 11일 유성천에서
자전거 유세 중인 모습



4월 11일 수통골 계룡산국립공원 입구에서
조승래 후보가 한 시민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4월 12일 조승래 후보가 축구동호인 경기장에 방문,
악수를 나누고 있다.



4월 12일 황운하 후보 지원유세 중인 조승래 후보



4월 1일 동구 중앙시장에서
장철민 후보 지원유세 중인 조승래 후보



선거 전날인 4월 14일, 조승래 후보가 원내동 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버스기사와 악수하고 있다.



선거 전날인 4월 14일, 조승래 후보가 유성구 일대에서 마지막 지역 순회유세를 하고 있다.



■ 후보자 주요공약

• 정책

- 지역위원회 공약TF팀 구성, 운영 통해 7개 분야 33개 공약 도출
→ 공보물 및 6차례 분야별 공약 보도자료 발표 (정치외)
- 공보물 제작 이후 제안은 지역·분야별 공약 카드뉴스 제작·홍보
→ (지역별) 학하·계산(3.30), 노은1동(3.31), 진잠동(4.2)
(분야별) 어르신(3.30), 여성(4.6), 청년(4.12)

• 공보물 공약

중단없는 유성발전을 위한 조승래의 약속!	미래로부터 온 도시, 업그레이드 유성!
유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33약속! 7UP!	

1. 경제 UP/ 유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국제 온천관광 거점지구' 유치
- ② 대전교도소 이전 정상 추진 및 도안 3단계 개발 촉진
- ③ 어르신·여성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은퇴자 지원 강화
- ④ 장대동 '첨단센서시티' 조성 및 죽동지구 상권 상생 방안 추진
- ⑤ 노은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및 시설 개선 추진

2. 혁신 UP/ 글로벌 테스트베드(미래 시범도시) 유성으로 만들겠습니다.

- ⑥ 유성 데이터 정보센터 구축으로 혁신 성장 지원
- ⑦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 '스타트업 파크' 조성
- ⑧ 바이오메디컬 산·학·연 강화 및 지원 시스템 구축
- ⑨ 중장년 50플러스 인생 이모작 지원을 위한 플랫폼 조성
- ⑩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공공 WiFi 확대 설치
- ⑪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법' 개정

3. 삶의 질 UP/ 교통·행정 인프라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ی겠습니다.

- ⑫ 출퇴근 상습 교통정체 해소
- 동서대로 개설(용계동~덕명동), 서유성 나들목(IC)(가칭) 설치
- ⑬ 유성복합터미널 추진 정상화
- ⑭ 도안 갑천 친수구역, 사람중심 생태 호수공원 조성
- ⑮ 학하·계산동 일대 행정동 신설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 교육 UP/ 유성의 미래를 튼튼하게 키우겠습니다.

- ⑯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 대폭 확대 및 ‘국립대법’ 발의
- ⑰ 초·중·고 학교 공간혁신 및 교육환경 업그레이드
- ⑱ 학교 미세먼지 제로, 체육관 환기장치 설치
- ⑲ 유아교육·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및 교사 처우 개선
- ⑳ 교육과 기술의 만남, 에듀테크 활성화

5. 문화·관광 UP/ 유성 생활의 풍경을 바꾸겠습니다.

- ㉑ 수통골 유스호스텔 이전·신축 및 유성구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㉒ 대전국립숲체원과 연계한 방동·성북동 주변 관광 명소 개발
- ㉓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한 복합문화체육공간 마련
- ㉔ 주민 행복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확대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6. 복지·안전 UP/ 안전하고 따뜻한 유성으로 돌보겠습니다.

- 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선진 복지 시스템 구축
- ㉖ 진잠동 주차타워를 활용한 복합생활문화복지센터 추진
- ㉗ 어린이·여성 안전 위한 CCTV, 신호등, LED보안등, 안심벨 확대 설치
- ㉘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마련
- ㉙ 장애인교육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발의
- ㉚ 보훈회관 확대 이전 및 보훈 가족 처우 개선

7. 국회 UP/ 일하는 국회,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 ㉛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㉜ 국회의원 급여삭감 제재 신설 등 국회의원 윤리 의무 강화
- ㉝ 국가 균형발전 실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평가 및 제언

• 캠페인

-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 소비 진작 창출, 현장 영웅들과 연대
→ 착한소비(마켓) 챌린지, 방역 봉사, 마스크 제작, 화장실 점검 등
- 차량 유세, 율동, 사무원 집회 없는 3無 선거캠페인
→ 후보 단독 출·퇴근 인사, 자전거 유세단 등 진행
- 선대위 발대식,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약발표회 등 대면 행사 지양
→ 온라인 간담회, 공약 보도자료 발표 등으로 대체

• 홍보 평가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선거 전개로, SNS 등 온라인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됨
- 중앙당, 정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공유, 지역 상황에 맞는 필요한 정보 취합하여 홍보물 제작, 4년 간의 의정 활동 성과 및 공약, 각종 홍보 내용으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연번	분류	내용
1	블로그, 페이스북	• 정보 전달 중심, 코로나 19 관련 안내 및 선거운동 활동내용을 중점적으로 업로드, 각종 뉴스기사 및 이슈를 지역 상황에 맞게 가독성을 높여 제작, 유통
2	유튜브	• 방송 연설 및 토론, 활동 영상 등 제작 및 유통
3	인스타그램	• 후보자 팬 페이지 형식, 비교적 가볍고 친근감 있는 사진 위주로 운영
4	카카오톡 채널	• 주요 정보 게시 및 홍보내용 발송

• 정리

-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 위기극복과 경제, 민생 살리기에 절박한 분위기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의 경우 당에 취약한 행정동에 집중적 활동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 향후 지역위원회 당원 저변확대를 통해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역할 기대
- * 유성구에서 가장 높은 1인 세대 비율(61.7%) 등 / 구 평균 36.6%(20.2월말)



■ 목표

- 이상민 의원은 지난 4번의 선거에서 꾸준히 인지도와 득표율이 상승하고, 지역 내 호감도 역시 증가로 다선 의원으로서 입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는 상황임.인물 선호도가 높고 충성 지지자를 다수 확보한 다선 의원의 인지도를 적극 이용하고자 함

■ 조직구성

• 구성원 명단

분과	직위	성명	분과	직위	성명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송태준	선거대책본부	(공동) 선거대책본부장	맹태호
		임재인			현민우
		구분환		선거 총괄	이명숙
		하경옥		선거 총괄	조원희
		이금선		보도자료, 홍보 등 담당	허동혁
		김연풍		배너광고, 공보, 벽보 등 담당	김경화
				등록서류, 서류관리 등 담당	전형우
				등록서류 및 계약서 관리 등 담당	이유리
				후보자 선거활동 수행 담당	김홍희
					신호석

■ 활동내용

• 주요 선거운동



이상민 후보가 4월 2일 북대전IC에서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3일 원촌삼거리에서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3일 캠프 사무실에서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3일 캠프 사무실에서 유성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3일 캠프 사무실에서 이상민 후보가 청소년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4일 캠프 사무실에서 이상민 후보가 호남향우회 임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4월 5일 캠프 사무실에서 이상민 후보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함께 악수를 하고 있다.



4월 6일 캠프 사무실에서 이상민 후보가 (사)한국예총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6일 캠프 사무실에서 청운령 경제인클럽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이상민 후보



이상민 후보가 4월 7일 캠프 사무실에서 대전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7일 캠프 사무실에서 유성소방서 전문대장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8일 대전시 출연기관노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8일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9일 캠프사무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9일 날마사거리에서 이상민 후보가 선거운동원들과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9일 캠프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장애인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9일 반석네거리에서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4월 9일 이상민 후보가 한국애견협회 대전지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4월 9일 이상민 후보가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10일 시당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당-시민당 합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후보



4월 10일 반석역네거리에서 거리인사 중인 이상민 후보



4월 10일 자운대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상민 후보



4월 11일 대전다문화센터 간담회 참석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중인 이상민 후보



이상민 후보가 4월 11일 캠프사무실에서 한국노총 버스, 택시 대전지부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대전지부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후보가 4월 13일 캠프 사무실에서 대전수의사회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13일 자운대 거리인사 중, 손을 흔드는 이상민 후보



4월 13일 승적골삼거리에서 이상민 후보가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4월 14일 관평동 원자력연구원 사거리에서 이상민 후보가 지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유성구를 이상민 후보 주요 공약

1. 교통 걱정 제로

- 동별 공용 주차공간 확보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 연결(전민동, 신성동, 구즉동, 관평동)
-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도입 등 친환경 교통시스템 확대

2. 아이 걱정 제로

-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기존 육아나눔터 시설 리모델링
- 동별 복합커뮤니티 공간 마련(노은2·3동·자운대·구즉동·관평동 신설, 신성동·전민동 추진예정)
- 질높은 교육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CCTV 및 신호등 설치 확대

3. 환경문제 걱정 제로

- 안전환경 조성관련 산학연클러스터로 미세먼지, 감염병, 원자력 문제 해결
- 스마트안전 알리미 서비스로 미세먼지 등 재난 실시간 안내
- 초중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최신식 공기정화 시스템 도입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로 안전지원 예산 확보
- 원자력 연구시설 토지와 건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4. 범죄 걱정 제로

- 스마트 생활안전 서비스 도입
- 반석천 외 산책로, 각 지역별 우범지역 CCTV설치
- 주민의 안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 노은2,3동 치안센터 신설 추진

■ 평가 및 제언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적이었음
-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명함 교부, 악수 등의 선거운동 방식을 제외, 시민들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선거운동을 진행함
- 또한 주민대표, 시민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과 지역 및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한 소규모 간담회를 다수 실시하며 의견 수렴, 이를 공약에 반영 및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응원, 그리고 지지를 받음
- 이후 철저한 공약 이행을 통해 지난 선거기간 동안 확보한 지역주민의 지지도를 유지 및 확장해야 함



■ 목표

- 문재인 정부의 성공 뒷받침 및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덕구 총선 승리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 마련
-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활동력 강화를 위해 대덕구 민주 역량의 조직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방편으로 총선 승리 활동을 전개

■ 조직구성

- 대덕구 선거구 선대위 조직 구성
- 주요구성원 명단

분과	직위	성명	분과	직위	성명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철재	유세본부	(공동)유세본부장	김귀태
		최동식			김안태
선거대책본부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문성원	여성본부	(공동)여성본부장	박주복
		김찬술			이정분
		손희역	청년본부	청년본부장	한종명
		서영완			여인원
	(공동)선거대책본부 부분부장	서미경	민생특보단	(공동)민생특보단장	함은숙
		김태성			최재혁
		박은희	SNS 서포터즈	SNS서포터즈단장	
		이삼남			
		이경수			

■ 활동내용

• 주요 선거운동

- 일시 / 장소 : ~ 4.14(화) / 대덕구 전역
- 내용 : 박영순 뚜벅이 유세



3월 28일 비래사 산책로에서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는 박영순 후보



박영순 후보가 비래동 일대에서 선거운동 중 어르신들의 집을 들어주고 있다.



박영순 후보가 4월 2일 송촌동 산책로에서 주민들과 번개 좌담회를 하고 있다.



박영순 후보가 4월 7일 대화동 일대에서 선거 운동 중 폐지 줍는 일을 돕고 있다.



4월 12일 송촌동 일대에서 박영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4월 13일 오정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박영순 후보가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4월 13일 비래동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엄지를 치켜올리는 박영순 후보



선거 전날인 4월 14일, 법동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박영순 후보

• 평가 및 제언

- **주요성과** : 대덕구 전역을 거의 매일 두번이 유세를 전개함으로써 대덕구 밑바닥 정서를 보수 성향에서 진보 성향으로 바꾸어내는 데 크게 일조하였음
- **교훈** : 코로나 사태 등의 선거운동 장애 요소가 있어도 두번이 유세를 통해 유권자들과의 대면접촉을 강화함으로써 당과 후보의 진심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함. -> 조건이 어려워도 한결같은 자세가 선거 승리의 관건임을 배움
- **미흡/개선사항** : 두번이 유세라는 단일한 형태에 국한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공감을 좀 더 일으키는 변화가 미흡했음. 이후에는 자전거 유세, 민원 청취 거점 마련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의 수렴 및 유권자 공감대 형성 강화의 필요성 있음

• 주요 선거운동

- **일시 / 장소** : 3. 17. (화) ~ 3. 20. (금) / 대덕구 일원
- **내용** :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활동



박영순 후보가 3월 17일 법동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영순 후보가 3월 18일 대전시의회에서 '코로나19극복 긴급재난생계수당' 도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월 20일,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을 소독 중인 박영순 후보

• 평가 및 제언

- **주요성과** : '코로나19'방역 및 대응 활동을 수차례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정부의 일상불란한 방역체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활동의 일상화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유권자의 표심을 우호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함
- **미흡/개선사항** : 지속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이후에는 선거 활동과 좀 더 결합하여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봉사활동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함

• 주요 선거운동

- **일시 / 장소** : 2020. 4. 10. (금) ~ 4. 13. (월)
- **내용**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전 국무총리) 대전 지원유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원유세
신탄진 집중유세(대전시당 현역의원 지원 유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4월 10일, 중앙시장에서 박영순 후보(원의 후보자 포함)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4월 10일 비래동 인근에서 박영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현역의원들이 신탄진 시장 입구에서 박영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평가 및 제언

- **주요성과** : 중앙 및 지역의 유력자들의 지원 유세가 선거 활동의 사기 진작 및 유권자들의 민심을 우호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함. 특히 유력 대권 주자들의 지역 방문 유세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실히 자극하여 우호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하였음
- **교훈** : 유력자들의 지원 유세는 해당 지역 후보들의 인물 및 정책 홍보 에 크게 기여함
- **미흡/개선사항** : 지원 유세가 일부 유력자, 일부지역에 국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 현상 발생 우려가 있음 이후에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유세 조직화를 통해 중앙과 지역, 도심과 원도심 지역 공히 하나의 선거구임을 모든 유권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덕구 박영순 국회의원 주요 공약**

1. **혁신도시 대덕! 공공기관 유치·청년일자리 창출 ... 연속·신대지구를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

- 연속·신대지구를 혁신도시로 지정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 연속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기 착공
- 연속지구에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 건립
- 신대동 4차산업혁명 테스트베드단지 조성

2.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덕구 노선연장**

- 연속차량기지(연축역)~광역철도 회덕역(환승역) 구간 1.8km
- 광역철도 회덕역까지 트램노선 연장, 연축역 및 회덕역 신설
- 대덕구 구간 (본선) 중리네거리~한남대학교~오정역~오정농수산물시장 (지선) 중리네거리~법동~동부여성가족원~연축역~회덕역
- 우수한 광역교통 대비 불편과 소외를 느끼는 대덕구민의 교통 편의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3. **대전·대덕산단을 산업혁신클러스터로 전환**

- 낙후한 대전·대덕산업단지를 고부가치화와 융·복합 신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우수한 근로연건을 갖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
- 7,000㎡ 규모 | 임대공장, 편의시설, 문화센터, 주차시설 등
- 친환경 고효율 생산환경 조성,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등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정주 환경 조성

4.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을 혁신형 공공종합병원으로 재건축**

- 법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옛 중앙병원)을 재건축하여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뿐만 아니라 대덕 구민의 의료공백을 줄일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500병상의 공공종합병원으로 재건축
- 대한민국 최고의 집중재활전문센터 운영, 지역 응급센터 운영, 수요 충족하는 중환자실 병상 확보, 음압병실 과 화상병상 운영, 병원 의료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5. **대덕구 관할 동대전세무서 신설**

- 유성구에 소재한 북대전세무서 이용으로 초래되는 시간적 금전적 불편해소 및 납세 편의와 국세행정서비스 확대
- 대전지방국세청사에 대덕지역 관할 세무서 신설, 신청사 2020년 말 완공 목표(지상 7층, 지하 2층)
※ 2018년 기준 전체 세수 2조8천억 중 67.9%에 해당하는 1조 9천억 원을 대덕구에서 징수.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51.1%에 해당하는 15,000여 명이 대덕구 주민일 정도로 인구수 대비 민원비중이 유성구보다 높음

6. **대화~중리간 조차장 연결교량 건설**

- 경부선 관통에 따라 양분된 대전조차장역 위로 연결교량을 건설하여 한발대로, 아리랑로 구간 교통난 해소 및 동·서지역 균형발전 견인
-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삼거리~중리동 럭키스포츠프라자 앞
- 교량신설 길이 350m, 폭 20m

7. **대청호 출렁다리 신설 및 계족산 휴양림 조성**

... **대청호와 계족산을 연계한 생태관광코스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① **대청호 출렁다리 및 생태관광지 조성**

- 대청호 주변 방치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경관다리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렁다리(경관다리) 200m, 명상숲, 탐방로 등

② **계족산 체류형 휴양림 조성**

- 장동삼림욕장 주변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체류형 휴양림을 조성하여 머무르는 관광객을 유입하여 장동 일원의 지역발전 도모
- 삼림휴양관, 캠핑장,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8. **제2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읍내동에 있는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과의 접근성 부족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오정·대화생활권 어르신들의 생활복지 향상, 건강·장수 실현 등을 위한 제2노인복지관 건립
-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소득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 지역주민 모두에게 종합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생활SOC 시설로 취미교실, 프로그램실, 실내체육실, 식당, 강당 등 운영

9. 멀티플렉스 영화관 유치 및 청년행복주택 건설

① 멀티플렉스 영화관 유치

- 문화소외 지역에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하여 세대를 연결하는 청년허브공간 조성 및 18만 대덕구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
- 석봉동에 연면적 2,400㎡ 멀티플렉스 영화관 2~3개관 및 편의시설 운영
- 신탄진생활권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② 대덕구 최초 신탄진 청년행복주택 200호 건설

- 기존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과 청년층 인구의 정착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 임대주택 등 복합시설 조성(신탄진동 주민센터부지)
- 청년행복주택(200호), 행정주민센터, 주민복지시설, 창업지원시설 등

10. 권역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① 오정동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추진

② 비래동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등
- 길치 근린공원 내 조성

③ 신탄진권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차질 없는 추진

- 주민센터, 돌봄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 석봉동 엑슬루타워 옆 문화부지

III

총평 및 제언

총평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석(7석)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처는 대체로 훌륭했다. 그 결과 외신 등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응 모범국’으로 평가했고, 위기 속에서도 빛난 대응은 대내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대전은 특히 당 소속 현역의원들의 지역구(4석)뿐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차지했던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는 등 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줬다. 이는 원도심 개발 등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코로나19 위기를 잘 대처해나가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대한민국미래준비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 지속적인 공동선대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대전 미래성장동력 3대 플랜’ 등 대전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현역 의원들은 원외 후보자에 대한 집중 지원유세를 통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해찬,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이 함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간 합동 선대위 회의’를 대전에서 개최, 대전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등의 시의적절한 지원도 승리에 큰 몫을 했다.

그 결과 현재 대전시당위원장인 조승래(유성갑)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 원내선임부대표로 임명됐다.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은 6선 고지에 오르며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했고, 5선의 이상민(유성을) 국회의원과 3선의 박범계(서구를) 국회의원 등 중진의 탄생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스펙트럼도 한층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의 지역에서 황운하(중구) 후보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 등 집중포화를 받았으나 ‘검찰개혁’을 이룰 책임자로서 중구민의 선택을 받았다. 또 장철민(동구) 후보는 3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보수 성향이 강한 동구에서 이번을 연출했으며, 박영순(대덕구) 후보 또한 3선에 도전한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등 대전 지역 전석 석권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언

대전 지역의 전반적인 총선결과를 살펴보면, 서구 및 유성구는 조승래, 박병석, 이상민, 박범계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모두 1만5000표 이상의 격차로 당선됐고, 원외 지역인 장철민, 황운하, 박영순 후보도 약 3000표 내외의 득표 차이로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다.

정당 지지율을 가늠할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전 지역의 경우 1만1137표(1.43%P)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한국당 보다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원외 지역인 동구, 중구 지역의 경우, 미래한국당의 득표율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덕구 제외).

이는 동구, 중구가 다른 지역구에 비해 60~70대 등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연령층 비율이 다소 높았던 것과 그동안 보수 진영 지지가 비교적 탄탄했던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그동안 국회나 코로나 정국에서 야당이 보여 준 실망감 등으로 인한 현역 의원에 대한 불신 등이 우리당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향후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 등 원도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공약들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등 더욱 단단한 더불어민주당 지지기반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시민의 뜻과 그 선택의 엄중함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4·15 총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지향점을 찾기 위해 시당 최초로 총선 백서를 펴내게 됐다.

이번 총선 백서를 통해 선거기간 중 약속했던 마음가짐과 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책임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총선 다음날인 4월 16일, 4·15 총선 및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국립대전현충원 및 세월호 순직교사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분양소를 향해 걷고 있다.

IV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백서

부록

01. 조직 구성표
02. 제21대 총선 결과표
03. 현수막

01. 조직 구성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02. 총선 결과표

■ 대전광역시 역대 총선결과

• 제19대 총선결과

- 총선 일자 : 2012. 4. 11. (수)

- 총선 결과 : 6개 선거구 중,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이 3석 확보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득표수	득표율 (%)
동구	새누리당	이장우	남	36,780	34.97
중구	새누리당	강창희	남	48,934	42.73
서구갑	민주통합당	박병석	남	53,671	54.53
서구을	민주통합당	박범계	남	46,908	43.62
유성구	민주통합당	이상민	남	65,900	52.54
대덕구	새누리당	박성효	남	40,425	50.19

• 제20대 총선결과

- 총선 일자 : 2016. 4. 13. (수)

- 총선 결과 : 7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4석 확보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득표수	득표율 (%)
동구	새누리당	이장우	남	47,514	44.05
중구	새누리당	이은권	남	48,465	41.64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남	56,241	48.66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남	56,819	49.53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남	37,569	48.28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남	47,014	56.87
대덕구	새누리당	정용기	남	40,340	45.46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정

3월 26일 ~ 27일	4월 2일	4월 10일 ~ 11일	4월 15일	
후보자등록 신청 (오전 9시~오후 6시)	선거기간 개시일	사전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선거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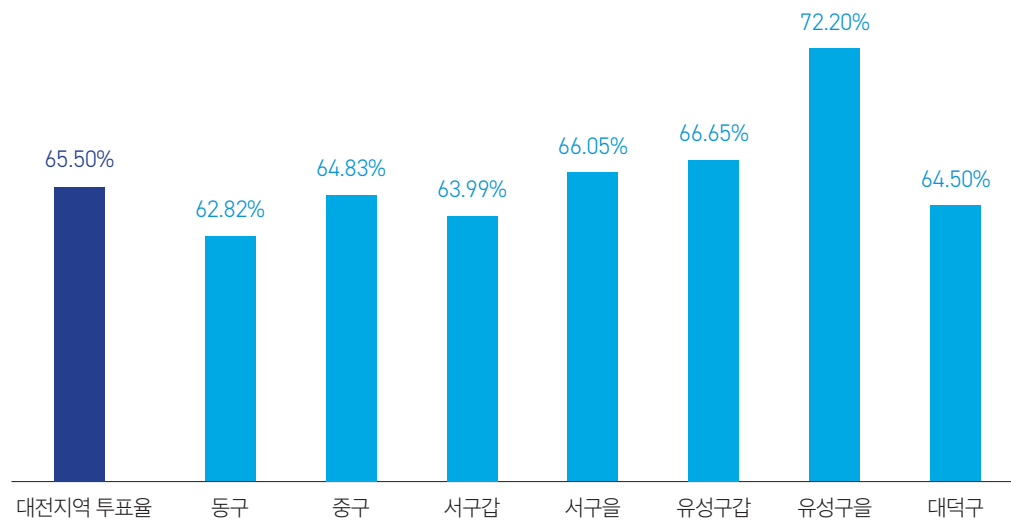
- 사전투표 2020. 4.10.(금) ~ 4.11.(토) 오전 6시~오후 6시

- 본투표 2020. 4. 15. (수)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권: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선거법	임기	출마자격	선출인원
공직선거법 법률 제17127호	2020.5.30.부터 2024.5.29.까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대전지역 7개 선거구별 국회의원 7명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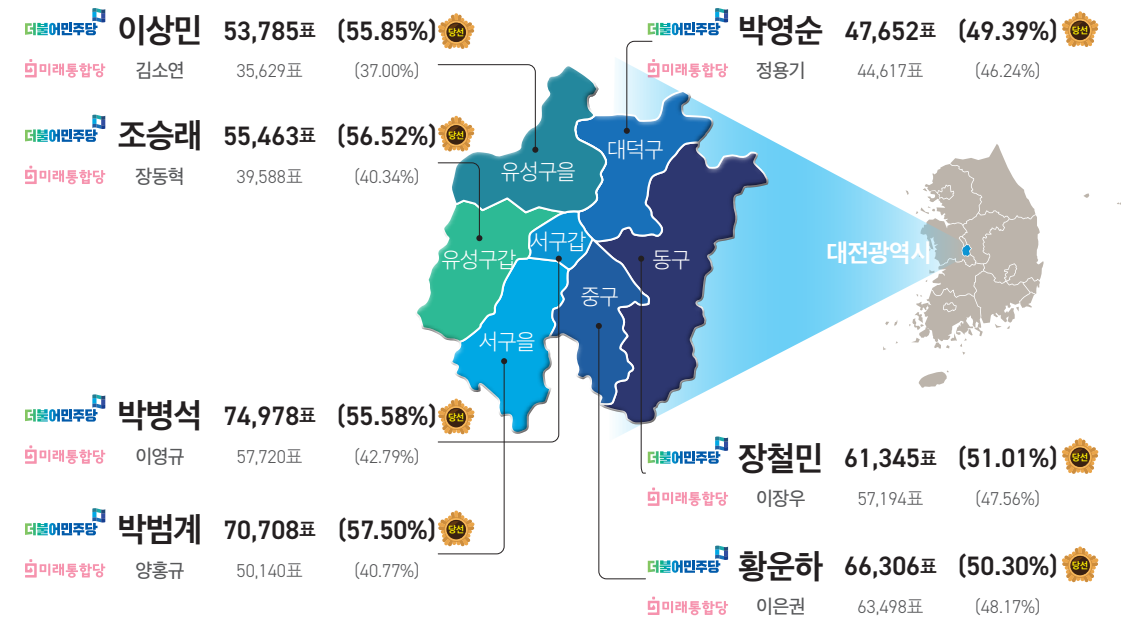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7개 선거구별 투표율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 현황

선거구명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합계	7	7	0	0	0
동구	1	1	0	0	0
중구	1	1	0	0	0
서구갑	1	1	0	0	0
서구을	1	1	0	0	0
유성구갑	1	1	0	0	0
유성구을	1	1	0	0	0
대덕구	1	1	0	0	0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득표 현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별 개표결과

• 동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미래통합당 이장우	국가혁명배당금당 송인경	계
합계		193,872	121,792	61,345	57,194	1,709	120,248
거소·선상투표		384	367	174	155	18	347
관외사전투표		11,187	11,179	6,935	3,803	205	10,943
국외부재자투표		392	85	63	21	1	85
국외부재자투표(공관)		0	5	2	3	0	5
중앙동	소계	5,055	3,018	1,276	1,657	51	2,984
신인동	소계	11,323	7,571	3,742	3,664	94	7,500
효동	소계	18,798	11,507	6,226	5,050	141	11,417
판암1동	소계	10,054	6,311	3,190	2,964	83	6,237
판암2동	소계	8,462	5,337	2,492	2,670	90	5,252
용운동	소계	13,344	8,192	3,949	4,063	104	8,116
대동	소계	11,510	7,123	3,426	3,540	86	7,052

자양동	소계	9,274	5,331	2,621	2,530	75	5,226
가양1동	소계	11,763	7,146	3,313	3,663	77	7,053
가양2동	소계	15,595	8,932	4,427	4,254	124	8,805
용전동	소계	17,205	9,431	4,831	4,331	144	9,306
성남동	소계	10,323	6,561	3,205	3,205	79	6,489
홍도동	소계	9,410	5,460	2,678	2,642	88	5,408
삼성동	소계	11,879	7,310	3,479	3,646	97	7,222
대청동	소계	2,203	1,433	485	906	22	1,413
산내동	소계	15,711	9,490	4,830	4,425	130	9,385

• 중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미래통합당 이은권	국가혁명배당금당 홍세영	계
합계		205,922	133,503	66,306	63,498	1,996	131,800
거소·선상투표		370	348	162	155	18	335
관외사전투표		11,921	11,915	7,325	4,120	239	11,684
국외부재자투표		529	118	86	29	2	117
국외부재자투표(공관)		0	17	11	6	0	17
은행선화동	소계	14,228	7,621	3,911	3,505	105	7,521
목동	소계	10,674	7,506	4,353	3,002	88	7,443
중촌동	소계	11,249	7,225	3,643	3,379	113	7,135
대흥동	소계	11,592	7,035	3,690	3,163	104	6,957
문창동	소계	4,317	2,579	1,165	1,317	54	2,536
석교동	소계	13,594	7,879	3,529	4,092	143	7,764
대사동	소계	4,707	2,705	1,129	1,494	39	2,662
부사동	소계	5,938	3,492	1,560	1,803	68	3,431
용두동	소계	8,651	5,552	2,815	2,585	72	5,472
오류동	소계	8,845	5,860	2,722	3,007	73	5,802
태평1동	소계	10,684	7,166	3,773	3,227	100	7,100
태평2동	소계	19,583	13,339	6,229	6,843	140	13,212
유천1동	소계	6,906	4,228	2,019	2,094	55	4,168
유천2동	소계	11,388	7,260	3,170	3,896	104	7,170
문화1동	소계	17,022	11,694	5,697	5,746	130	11,573

문화2동	소계	11,010	6,912	3,250	3,471	105	6,826
산성동	소계	22,714	13,050	6,067	6,562	244	12,873

• 서구갑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미래통합당 이영규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순자	총청미래당 이강철	
합계		213,330	136,521	74,978	57,720	1,034	1,148	134,880
거소·선상투표		415	397	227	133	7	11	378
관외사전투표		14,820	14,803	9,715	4,559	116	180	14,570
국외부재자투표		427	107	82	23	0	1	106
국외부재자투표(공관)		0	9	2	7	0	0	9
복수동	소계	16,739	10,656	5,985	4,427	68	61	10,541
도마1동	소계	12,855	7,379	3,246	3,842	76	77	7,241
도마2동	소계	15,452	9,244	4,259	4,683	89	78	9,109
정림동	소계	13,905	8,989	4,777	3,960	54	52	8,843
변동	소계	13,380	7,437	3,495	3,659	89	101	7,344
괴정동	소계	15,728	7,663	4,191	3,176	99	97	7,563
가장동	소계	9,804	6,237	2,917	3,135	50	65	6,167
내동	소계	18,371	11,734	5,956	5,506	79	86	11,627
가수원동	소계	28,485	18,070	10,165	7,551	100	115	17,931
관저1동	소계	12,872	8,542	4,875	3,484	53	57	8,469
관저2동	소계	36,500	22,993	14,170	8,378	113	140	22,801
기성동	소계	3,577	2,229	897	1,185	41	27	2,150

• 서구을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미래통합당 양홍규	우리공화당 이동규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열	
합계		188,715	124,653	70,708	50,140	973	1,143	122,964
거소·선상투표		308	294	182	84	3	7	276
관외사전투표		12,851	12,845	8,305	4,068	92	138	12,603
국외부재자투표		527	107	83	21	1	1	106
국외부재자투표(공관)		0	3	1	1	1	0	3
용문동	소계	10,912	5,892	2,945	2,698	85	91	5,819
탄방동	소계	20,351	11,812	6,707	4,724	103	132	11,666
둔산1동	소계	13,185	10,217	5,365	4,631	55	74	10,125

둔산2동	소계	26,672	17,943	10,802	6,693	129	135	17,759
둔산3동	소계	16,276	11,593	5,951	5,349	76	109	11,485
갈마1동	소계	17,572	9,759	5,254	4,181	89	99	9,623
갈마2동	소계	20,280	10,585	6,210	4,067	93	91	10,461
월평1동	소계	10,233	5,651	3,233	2,183	59	67	5,542
월평2동	소계	12,375	8,383	4,278	3,770	74	76	8,198
월평3동	소계	16,824	12,246	6,963	4,969	75	75	12,082
만년동	소계	10,349	7,301	4,409	2,699	38	48	7,194

• 유성구갑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미래통합당 장동혁	우리공화당 양순옥	민중당 김선재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병수	계
합계		148,801	99,185	55,463	39,588	368	2,148	549	98,116
거소·선상투표		249	237	131	83	3	8	4	229
관외사전투표		12,617	12,613	7,947	4,027	45	296	93	12,408
국외부재자투표		470	84	65	15	1	1	0	82
국외부재자투표(공관)		0	6	2	3	0	1	0	6
진잠동	소계	26,211	15,577	8,500	6,517	79	243	83	15,422
온천1동	소계	29,506	17,079	8,904	7,347	68	409	117	16,845
온천2동	소계	29,616	19,667	10,590	8,167	80	538	94	19,469
노은1동	소계	16,668	11,716	6,942	4,337	30	248	66	11,623
원신흥동	소계	33,464	22,201	12,381	9,091	62	404	92	22,030

• 유성구을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미래통합당 김소연	정의당 김윤기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범용	계
합계		134,730	97,283	53,785	35,629	6,355	524	96,293
거소·선상투표		217	210	106	79	11	5	201
관외사전투표		10,838	10,832	6,385	3,519	661	90	10,655
국외부재자투표		567	91	57	33	1	0	91
국외부재자투표(공관)		0	9	7	2	0	0	9
노은2동	소계	17,266	12,052	6,436	4,576	889	42	11,943
신성동	소계	17,929	12,594	6,106	5,568	733	52	12,459
전민동	소계	20,415	15,053	8,504	5,532	830	62	14,928
구죽동	소계	21,383	13,202	7,518	4,409	1,001	140	13,068
관평동	소계	20,665	15,215	8,639	5,502	916	65	15,122
노은3동	소계	25,450	18,001	10,010	6,403	1,312	68	17,793

• 대덕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미래통합당 정용기	국가혁명배당금당 강휘찬	무소속 김근식	무소속 김낙천	계
합계		151,336	97,617	47,652	44,617	792	2,913	496	96,470
거소·선상투표		313	298	139	126	3	14	5	287
관외사전투표		8,702	8,697	5,015	3,039	105	223	113	8,495
국외부재자투표		274	63	45	17	0	0	0	62
국외부재자투표(공관)		0	6	5	1	0	0	0	6
오정동	소계	12,575	7,455	3,357	3,807	79	104	32	7,379
대화동	소계	6,532	3,862	1,677	1,919	60	67	34	3,757
회덕동	소계	11,480	7,294	3,347	3,648	49	165	22	7,231
비래동	소계	13,637	8,421	4,060	3,909	56	271	47	8,343
송촌동	소계	21,671	14,273	7,433	5,895	85	685	59	14,157
중리동	소계	16,354	9,373	4,357	4,557	74	254	30	9,272
법1동	소계	8,327	5,430	2,575	2,528	48	187	21	5,359
법2동	소계	13,778	9,530	4,339	4,558	61	458	32	9,448
신탄진동	소계	9,806	6,142	2,801	3,023	54	180	27	6,085
석봉동	소계	10,740	6,651	3,357	3,020	39	151	25	6,592
덕암동	소계	11,465	6,800	3,341	3,192	53	96	35	6,717
목상동	소계	5,682	3,321	1,803	1,378	26	58	14	3,279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명부

선거구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동구	장철민	1983.05.16 (36세)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 수료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 장(2급상당) •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61,345 (51.01%)
중구	황운하	1962.09.10 (57세)	국회의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전)대전지방경찰청장 • (전)대전중부경찰서장	66,306 (50.3%)
서구갑	박병석	1952.01.25 (68세)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전)19대 국회부의장 • (전)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74,978 (55.58%)
서구을	박범계	1963.04.27 (56세)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제20대 국회의원 • (전)대전지방법원 판사	70,708 (57.5%)
유성구갑	조승래	1968.02.21 (52세)	국회의원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졸업(평화안보학석사)	• (현)제20대 국회의원 • (전)노무현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55,463 (56.52%)
유성구을	이상민	1958.01.22 (62세)	국회의원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현)국회의원 • (전)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53,785 (55.85%)
대덕구	박영순	1964.12.07 (55세)	국회의원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동양철학전공)	• (전)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 (전)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선임행정관	47,652 (49.39%)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구별 투표현황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합계	1,237,183	810,576	득표수	249,771	260,908
			득표율	32.25%	33.68%
동구	193,956	121,811	득표수	39,823	39,041
			득표율	34.52%	33.85%
중구	206,028	133,498	득표수	45,407	41,371
			득표율	35.73%	32.56%
서구	402,186	261,200	득표수	79,104	84,364
			득표율	31.66%	33.76%
유성구	283,617	196,457	득표수	54,520	64,546
			득표율	28.73%	34.02%
대덕구	151,396	97,610	득표수	30,917	31,586
			득표율	33.42%	34.15%

※ 정당별 득표수는 4개 정당(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만 기재했음.

• 동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정당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계		
합계		193,956	121,811	2,996	39,823	39,041	9,900	115,331	6,480	72,145
거소·선상투표		384	365	17	86	101	19	318	47	19
관외사전투표		11,187	11,184	346	2,612	4,047	1,121	10,583	601	3
재외투표		474	92	1	18	37	11	88	4	382
재외투표(공관)		0	0	0	0	0	0	0	0	0
중앙동	소계	5,055	3,019	70	1,234	877	150	2,852	167	2,036
신인동	소계	11,323	7,572	147	2,581	2,485	580	7,157	415	3,751
효동	소계	18,799	11,508	225	3,426	3,964	1,061	10,950	558	7,291
판암1동	소계	10,054	6,311	192	2,031	1,961	556	5,972	339	3,743
판암2동	소계	8,462	5,341	153	1,883	1,696	310	4,978	363	3,121
용운동	소계	13,344	8,194	169	2,832	2,602	709	7,845	349	5,150
대동	소계	11,511	7,124	150	2,326	2,213	613	6,781	343	4,387
자양동	소계	9,274	5,331	136	1,824	1,582	440	5,001	330	3,943
가양1동	소계	11,763	7,147	171	2,616	2,171	547	6,791	356	4,616
가양2동	소계	15,595	8,934	256	2,940	2,874	702	8,475	459	6,661

용전동	소계	17,205	9,434	205	3,092	2,962	736	8,929	505	7,771
성남동	소계	10,323	6,561	190	2,171	2,108	496	6,204	357	3,762
홍도동	소계	9,410	5,460	139	1,824	1,717	417	5,178	282	3,950
삼성동	소계	11,879	7,310	182	2,632	2,249	500	6,892	418	4,569
대청동	소계	2,203	1,433	25	685	315	114	1,349	84	770
산내동	소계	15,711	9,489	221	3,010	3,079	818	8,986	503	6,222

• 중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정당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계		
합계		206,028	133,498	2,949	45,407	41,371	10,792	127,055	6,443	72,530
거소·선상투표		370	347	20	92	106	21	316	31	23
관외사전투표		11,921	11,915	335	2,871	4,192	1,221	11,271	644	6
재외투표		633	126	2	26	54	14	122	4	507
재외투표(공관)		0	0	0	0	0	0	0	0	0
은행선화동	소계	14,228	7,622	203	2,493	2,442	605	7,261	361	6,606
목동	소계	10,674	7,506	144	2,027	2,670	825	7,219	287	3,168
중촌동	소계	11,249	7,225	180	2,329	2,347	548	6,825	400	4,024
대흥동	소계	11,592	7,035	162	2,242	2,321	597	6,699	336	4,557
문창동	소계	4,317	2,579	62	975	774	170	2,443	136	1,738
석교동	소계	13,594	7,881	209	2,897	2,215	571	7,391	490	5,713
대사동	소계	4,708	2,705	50	1,052	696	200	2,536	169	2,003
부사동	소계	5,938	3,492	92	1,286	974	266	3,301	191	2,446
용두동	소계	8,651	5,552	129	1,792	1,700	495	5,287	265	3,099
오류동	소계	8,845	5,860	119	2,207	1,658	429	5,616	244	2,985
태평1동	소계	10,684	7,168	146	2,260	2,407	605	6,851	317	3,516
태평2동	소계	19,583	13,338	220	5,175	3,923	1,021	12,862	476	6,245
유천1동	소계	6,906	4,227	94	1,567	1,228	292	4,000	227	2,679
유천2동	소계	11,388	7,261	148	2,824	2,097	469	6,889	372	4,127
문화1동	소계	17,023	11,693	195	4,115	3,567	1,022	11,296	397	5,330
문화2동	소계	11,010	6,913	147	2,443	2,104	505	6,544	369	4,097
산성동	소계	22,714	13,051	292	4,732	3,896	916	12,324	727	9,663

• 서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정당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계		
합계		402,186	261,200	5,574	79,104	84,364	24,729	249,841	11,359	140,986
거소·선상투표		723	689	32	177	184	58	621	68	34
관외사전투표		27,671	27,670	753	6,545	9,791	2,825	26,143	1,527	1
재외투표		1,089	236	5	36	101	19	231	5	853
재외투표(공관)		0	0	0	0	0	0	0	0	0
북수동	소계	16,739	10,660	184	3,135	3,526	1,077	10,209	451	6,079
도마1동	소계	12,855	7,383	180	2,708	2,006	514	6,871	512	5,472
도마2동	소계	15,452	9,247	216	3,346	2,655	717	8,764	483	6,205
정림동	소계	13,906	8,996	212	2,880	2,929	760	8,552	444	4,910
변동	소계	13,380	7,437	175	2,659	2,192	523	7,071	366	5,943
용문동	소계	10,912	5,892	139	1,989	1,708	474	5,564	328	5,020
탄방동	소계	20,352	11,814	250	3,578	3,872	1,118	11,295	519	8,538
둔산1동	소계	13,185	10,218	139	3,630	2,939	909	9,935	283	2,967
둔산2동	소계	26,672	17,945	308	5,146	5,981	2,033	17,426	519	8,727
둔산3동	소계	16,276	11,592	189	4,236	3,442	926	11,219	373	4,684
괴정동	소계	15,729	7,664	165	2,252	2,612	623	7,269	395	8,065
가장동	소계	9,804	6,236	138	2,351	1,763	488	5,960	276	3,568
내동	소계	18,371	11,736	236	4,032	3,533	996	11,265	471	6,635
갈마1동	소계	17,573	9,762	202	3,229	3,029	821	9,310	452	7,811
갈마2동	소계	20,280	10,585	225	3,041	3,457	1,006	10,114	471	9,695
월평1동	소계	10,233	5,652	99	1,566	1,844	594	5,378	274	4,581
월평2동	소계	12,375	8,384	204	2,853	2,386	771	7,998	386	3,991
월평3동	소계	16,824	12,252	261	3,815	3,812	1,321	11,872	380	4,572
만년동	소계	10,350	7,309	161	1,953	2,325	847	7,072	237	3,041
가수원동	소계	28,486	18,073	362	5,081	6,294	1,841	17,405	668	10,413
관저1동	소계	12,872	8,542	172	2,407	2,928	850	8,170	372	4,330
관저2동	소계	36,500	22,993	491	5,607	8,520	2,452	22,118	875	13,507
기성동	소계	3,577	2,229	75	852	533	166	2,005	224	1,348

• 유성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정당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계		
합계		283,617	196,457	3,739	54,520	64,546	22,097	189,722	6,735	87,160
거소·선상투표		466	446	31	104	138	34	406	40	20
관외사전투표		23,455	23,439	536	5,488	8,134	2,893	22,400	1,039	16

재외투표		1,119	182	1	36	62	24	179	3	937
재외투표(공관)		0	0	0	0	0	0	0	0	0
진잠동	소계	26,212	15,578	328	4,735	5,156	1,429	14,979	599	10,634
온천1동	소계	29,506	17,080	346	5,489	5,300	1,472	16,309	771	12,426
온천2동	소계	29,617	19,667	363	6,085	5,964	1,963	19,020	647	9,950
노은1동	소계	16,668	11,717	208	3,205	4,039	1,188	11,397	320	4,951
노은2동	소계	17,267	12,058	205	3,225	3,840	1,642	11,711	347	5,209
신성동	소계	17,930	12,601	205	3,914	3,470	1,442	12,184	417	5,329
전민동	소계	20,415	15,054	293	3,912	4,846	1,925	14,611	443	5,361
구죽동	소계	21,383	13,204	303	2,970	4,948	1,733	12,667	537	8,179
관평동	소계	20,665	15,215	270	3,962	5,159	1,981	14,849	366	5,450
원신흥동	소계	33,464	22,201	369	6,828	7,343	2,051	21,518	683	11,263
노은3동	소계	25,450	18,008	281	4,565	6,145	2,319	17,485	523	7,442

• 대덕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정당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계		
합계		151,396	97,610	2,368	30,917	31,586	8,415	92,490	5,120	53,786
거소·선상투표		313	295	14	79	82	25	266	29	18
관외사전투표		8,702	8,700	290	1,985	3,035	949	8,208	492	2
재외투표		334	66	1	14	29	2	64	2	268
재외투표(공관)		0	0	0	0	0	0	0	0	0
오정동	소계	12,575	7,454	179	2,693	2,215	518	7,067	387	5,121
대화동	소계	6,532	3,862	101	1,284	1,143	303	3,534	328	2,670
회덕동	소계	11,480	7,294	158	2,567	2,254	586	6,914	380	4,186
비래동	소계	13,637	8,420	179	2,882	2,750	593	8,001	419	5,217
송촌동	소계	21,671	14,273	308	4,099	4,943	1,421	13,709	564	7,398
중리동	소계	16,354	9,373	198	3,133	2,937	749	8,880	493	6,981
법1동	소계	8,327	5,428	138	1,765	1,751	458	5,105	323	2,899
법2동	소계	13,778	9,530	221	3,170	2,939	777	9,020	510	4,248
신탄진동	소계	9,806	6,139	163	2,130	1,881	488	5,811	328	3,667
석봉동	소계	10,740	6,651	152	1,983	2,179	646	6,317	334	4,089
덕암동	소계	11,465	6,800	167	2,199	2,222	607	6,429	371	4,665
목상동	소계	5,682	3,321	99	934	1,224	293	3,163	158	2,361

4-15 재·보궐선거 당선인 및 득표 현황

• 선거 결과

선거구	정당	이름	득표수 (득표율)	결과
서구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19,979 (55.94%)	당선
	미래통합당	박종화	15,732 (44.05%)	낙선
서구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성	21,233 (55.22%)	당선
	미래통합당	최병순	17,216 (44.77%)	낙선
서구 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20,348 (57.10%)	당선
	미래통합당	고현석	15,282 (42.89%)	낙선
유성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만	27,626 (57.45%)	당선
	미래통합당	조은호	20,453 (42.54%)	낙선

득표 현황

• 서구 제6선거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미래통합당 박종화	계
합계		53,139	36,766	19,979	15,732	35,711
거소투표		104	101	57	37	94
관내사전투표		12,979	12,970	7,872	4,867	12,739
관외사전투표		3,427	3,423	2,101	1,219	3,320
월평1동	소계	7,927	3,325	1,639	1,512	3,151
월평2동	소계	9,106	5,069	2,196	2,616	4,812
월평3동	소계	12,054	7,423	3,747	3,482	7,229
만년동	소계	7,542	4,440	2,361	1,993	4,354

• 서구 나선거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김동성	미래통합당 최병순	계
합계		62,813	39,944	21,233	17,216	38,449
거소투표		124	119	65	45	110
관내사전투표		12,721	12,680	7,395	4,982	12,377
관외사전투표		3,713	3,698	2,445	1,131	3,576
복수동	소계	12,966	6,831	3,652	2,880	6,532
도마1동	소계	10,202	4,698	2,056	2,397	4,453
도마2동	소계	12,704	6,440	2,851	3,319	6,170
정림동	소계	10,383	5,425	2,740	2,442	5,182

• 서구 바선거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미래통합당 고현석	계
합계		53,139	36,763	20,348	15,282	35,630
거소투표		104	101	51	41	92
관내사전투표		12,979	12,943	8,038	4,702	12,740
관외사전투표		3,427	3,418	2,117	1,202	3,319
월평1동	소계	7,927	3,326	1,597	1,521	3,118
월평2동	소계	9,106	5,069	2,288	2,526	4,814
월평3동	소계	12,054	7,421	3,836	3,330	7,166
만년동	소계	7,542	4,440	2,393	1,945	4,338

• 유성구 다선거구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송재만	미래통합당 조은호	계
합계		67,671	49,292	27,626	20,453	48,079
거소투표		108	102	58	38	96
관내사전투표		14,667	14,649	9,258	5,160	14,418
관외사전투표		6,390	6,364	3,909	2,293	6,202
노은2동	소계	13,677	8,382	4,353	3,745	8,098
신성동	소계	13,168	7,688	3,455	4,018	7,473
노은3동	소계	19,661	12,073	6,571	5,190	11,761

03. 현수막

■ 각종 정책 홍보 현수막

각 선거구 코로나19 극복 현수막



동구 대전역 네거리



중구 용두동 오룡역4가 타이어뱅크



서구갑 가수원네거리



서구를 세이브존



유성구갑 덕명동 4가



유성구를 원자력발전소 앞



대덕구 송촌네거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현수막



동구 판암4단지네거리



중구 목동사거리



서구갑 정림사거리



서구를 모정역네거리



유성구갑 봉명동 4가



유성구를 고래들사거리



대덕구 송촌네거리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동구 성남네거리

본투표 독려 현수막



동구 성남네거리



중구 보문오거리



서구갑 도안초삼거리



중구 보문오거리



서구갑 도안초삼거리



서구를 만년초등학교삼거리



유성구갑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



서구를 만년초등학교삼거리



유성구갑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



유성구를 북대전농협



대덕구 읍내동 대한통운



유성구를 북대전농협



대덕구 읍내동 대한통운

■ 선거구별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구별 정당선거사무소

세월호 6주기 현수막



동구 판암역



중구 태평오거리



서구갑 안골네거리



서구를 통계센터 사거리



유성구갑 원신흥동



유성구를 대박횃집 맞은편



대덕구 송촌네거리



동구 정당선거사무소



중구 정당선거사무소



서구를 정당선거사무소



서구갑 정당선거사무소



유성구갑 정당선거사무소

■ 당선현황



시당 관계자가 제21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 당선 현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선거구별 후보자 대표 현수막

동구



중구



서구갑



서구를



유성구갑



유성구를



대덕구



다시!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제21대 총선 백서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펴낸이	조승래(대전시당위원장)
펴낸곳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 서현빌딩 8층 T. 042-254-6936 F. 042-254-6939
기획·편집	김정표, 노준호, 최영석, 이광배, 김빛나, 윤자은
제작	점필정 디자인콘텐츠

